

경기도

【인물 편】

역사 **행**
역 **영**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용 교재

경기도 역사여행

【인물 편】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경기도 역사인물과의 만남!

○ 2016년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해 입니다.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현재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유학기제를 설계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찾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과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교실 수업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 천년에 즈음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찾아보는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살아온 경기도는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집필진은 모두 경기도의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인물, 문화유산, 사건 등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역사를 공부한 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을 지나 2학년부턴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연계하여 공부할 교육 내용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대주제 중에서 '경기도의 인물 편'을 개발하였습니다. 인물 편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의 역사 인물이 살아온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내면화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도 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는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

둘째는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

셋째는 **문화를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

넷째는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 여성입니다.**

○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학생들이 본 교재를 활용하여 경기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이 교재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단원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들

- 1차시
정도전 조선왕조의 설계자 12
- 2차시
채제공 올바른 신념을 실천한 재상 22
- 3차시
정약용 내일의 기틀을 마련한 실학자 32
- 4차시
여운형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한 민족의 지도자 42

2단원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들

- 5차시
서희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외교관 54
- 6차시
권율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늑각이 장군 64
- 7차시
최익현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학자 74
- 8차시
이정근 3·1운동으로 세상을 바꾼 경기도 사람들 84

3단원

문화의 향气和 즐긴 경기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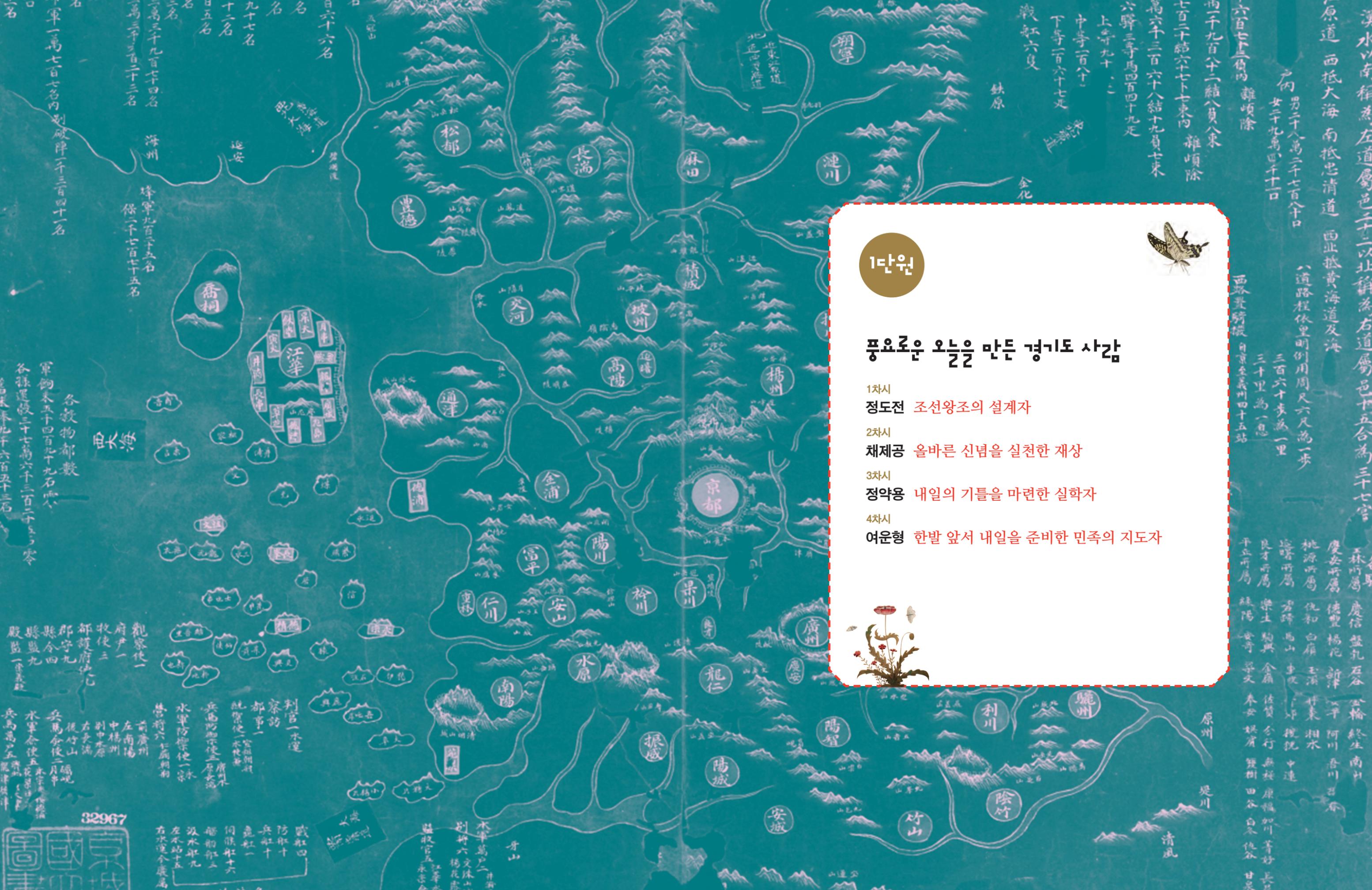
- 9차시
전곡리 사람들 한반도의 첫 사람 98
- 10차시
나옹화상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108
- 11차시
이이 조선 성리학을 펼친 유학자 118
- 12차시
김정희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를 모두 닳아 없애고 128

4단원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의 여성

- 13차시
나혜석 남녀평등을 외친 신여성 140
- 14차시
명성황후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 여성 150
- 15차시
최용신 잠자는 조선을 깨운 교육자 160
- 16차시
김향화 3·1운동에 참가한 기생 170
- 참고문헌 180





1만원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감

- 1차시 **정도전** 조선왕조의 설계자
- 2차시 **채제공** 올바른 신념을 실천한 재상
- 3차시 **정약용** 내일의 기틀을 마련한 실학자
- 4차시 **여운형**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한 민족의 지도자



32967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 1

1차시



정도전

조선왕조의 설계자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문익점, 목화씨를 가져오다 최영, 왜구 토벌 이성계, 위화도회군 고려 멸망, 조선 건국 한양 천도

1363년

1376년

1388년

1392년

1394년

1342년
출생

1362년
벼슬길 시작

1383년
이성계를 만남

1392년
조선 건국

1398년
이방원에게
참수



1336년

1368년

1369년

1375년

1405년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본, 무로마치막부 성립 중국, 명나라 건국 중앙아시아, 티무르 제국 성립 르네상스 시작 명, 정화의 남해 원정

생각
열기

<도전! 골든벨>에 참가해 최후의 1인이 된 학생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 중 도의 이름은 보통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이름을 따와서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시의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에요. 경은 왕이 있는 서울을, 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의 땅을 의미하죠. 즉 경기도는 왕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변을 의미합니다.

‘경기’는 고려 때 개경(지금의 개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오늘날의 경기도는 조선이 건국되어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양과 경기도, 나아가 조선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인 정도전입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살기 큰 탐내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다

1 고려 후기 집권세력.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굴복한 이후 새로 형성된 지배세력을 가리킨다. 권문세족은 기존에 권력을 가졌던 문벌귀족 일부와 무신정권기에 새롭게 권력을 차지한 일부 무신, 그리고 지방에서 새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원과 결탁하여 출세한 친원 세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도전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성립되는 역사의 격동기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인물이에요. 그는 고려 공민왕 때 과거에 합격하여 큰 꿈을 안고 관리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권문세족과의 갈등으로 3년간의 유배생활과 6년의 유랑생활을 했어요. 그 후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이 개국된 지 6년

만에 이방원(훗날 3대 임금 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적극 주도하였으나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정도전의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도전은 1362년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의 길을 시작합니다. 당시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이인임, 염흥방 등의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습니다. 권문세족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땅을 넓혔는데, 그 땅이 강과 산을 경계로 할 만큼 넓었어요.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은 송곳 꽃을 땅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거기에서 권문세족들은 친원반명, 즉 원을 가까이 하고 명을 배척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중국의 상황은 원이 쇠퇴하고 명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지요. 정도전은 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명을 멀리하는 외교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지요. 또,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권문세족의 욕심을 비판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정도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1375년 원의 사신이 고려에 왔습니다. 명을 공격하는 데 고려가 힘을 보태라고 요구했어요. 친원파인 권문세족들은 정도전에게 사신을 접대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정도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신의 목을 베어오거나 아니면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겠다.”



결국 정도전은 이 일로 인해 전라도 나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3년의 귀양살이가 끝난 뒤에도 권문세족들의 박해가 계속되어 6년간 벼슬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정도전의 모습은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도전이 유배를 가면서 쓴 시 「감흥」에서도 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부터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니
살기를 탐내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다

유배와 유랑생활을 하던 9년 동안 그의 깨끗한 태도에 대해 권문세족은 물론 그와 함께 공부한 동료들조차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벼슬길도 막히고 친구들도 떠난 상황에서 그의 생활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던 아내마저 어려운 생활에 힘듦과 원망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아내의 편지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개혁의 의지를 의연하게 담아 답장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이지 미워해서가 아닐 것이라고 나는 믿소. 당신이 집을 걱정하는 것과 같이 나는 나라를 걱정하였고 나의 뜻에 충실하였소. 성공과 실패, 이로움과 해로움, 명예와 치욕, 얻는 것과 잃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쇠는 두드길수록 더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둘 중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목표했던 일을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더욱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도전은 더욱 노력을 하자는 쪽을 선택합니다.

3년간의 유배생활 중 만난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패한 관리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책에서 글로만 배웠던 이상적인 정치가 아닌 현실에서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실질적인 정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년간의 유랑생활은 정도전에게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정도전을 미워하던 관리가 그의 집을 헐어버리는 등 끊임없는 어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도전은 집이 없어 농부나 친구의 집에서 빌붙어 살기도 하였으며, 먹고살기 위해 스스로 힘든 농사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383년 정도전은 함흥에 있던 이성계를 찾아가 만나면서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이성계는 흥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난 이유는 부패한 정치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에 필요한 힘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군대와 날이 선 무기들을 보고 이성계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성계 역시 정도전의 개혁 방안에 대해 감탄하였습니다. 이성계는 개혁을 주장하는 정도전에게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정도전은 1384년 드디어 관리로 복직합니다. 이후 명과의 외교적 갈등을 잘 해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성계의 추천을 받아 성균관 대사성이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지요.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선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잡게 되자 그의 참모가 되어 그동안 꿈꾸었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토지제도의 개혁입니다. 정도전은 대지주들이 땅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량의 절반을 받는 당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도전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토지제도는 전국의 토지를 몰수하여 인구수에 따라 나누어주고 수확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전의 생각은 대지주인 권문세족의 반대뿐 아니라 개혁을 함께 추진하던 동료들과 그의 스승이었던 이색과도 사이가 벌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도전의 절친인 정몽주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 어린 시절부터 스승인 이색에게 함께 가르침을 받은 사이였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뒤에도 성균관에 함께 있으면서 학문과 나라의 정책을 토론하던 동료이자, 기나긴 유배와 유랑생활에도 소식을 전하며 힘을 주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온건한 방법으로 고려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썩어빠진 권문세족으로 가득 찬 고려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역성혁명을 추진합니다.

이를 눈치챈 정몽주는 친구였던 정도전을 감옥에 가두고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는 살해되고 정도전은 옥에서 풀려납니다. 이제 정도전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1392년 정도전은 다른 신하들과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이 된 이성계는 새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합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

정도전은 개국 1등 공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새 나라의 전반적인 제도와 국가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도전은 1394년 『조선경국전』을 편찬합니다. 이 책은 국가를 통치하는 규범으로 조선이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후에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 규범이 된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도읍지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길 때 한양의 도시 설계를 담당합니다. 유교 원리에 입각하여 궁궐의 모습과 위치,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과 임금님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의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궁궐과 궁궐 속 각 건물의 이름도 직접 정하였습니다. 경복궁의 이름은 유교경전에서 가져온 것으로 왕과 자손,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뜻입니다. 경복궁에서 임금님이 나랏일을 보던 사정전은 생각할 '사똥'와 정치 '정궤'를 사용하여 그 이름을 지었는데 임금님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슬기로운 생각으로 정치를 하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양 성곽의 4대문의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어요. 동쪽 문은 '흥인지문興仁之門', 남문은 '숭례문崇禮門', 북문은 '숙정문肅淸門²', 서문은 '돈의문敦義門'으로 짓고, 성곽 가운데에 위치한 종각을 '보신각普信閣'이라 이름을 붙여서 유학의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² 정도전이 지은 이름은 숙청문(肅淸門)이었는데, 이후에 숙정문(肅靖門)으로 바뀌었다.



조선의 기본적인 체제를 정비한 정도전이 생각한 조선의 정치 구조는 재상중심제였습니다. 정도전은 왕조 국가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어리석거나 난폭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훌륭한 재상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임금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신하를 잘 통솔함으로써 해결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임금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나라의 모든 일은 신하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갖는 왕조국가에서 그의 이러한 생각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차지한 왕실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정도전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방원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이 거느린 사병을 없애려고 하였으며 이방원과 이복형제인 어린 막내 방석을 세자로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죽이고 자신의 형인 방과를 세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정치를 추구한 정도전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이방원에 의해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정몽주를 충신으로 추앙하고, 정도전을 역적으로 몰아 그의 흔적을 지웠습니다.³

후에 신숙주는 정도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국 초기에 실시된 큰 정책은 다 선생(정도전)이 정한 것으로서 당시 영웅호걸이 일시에 일어나 구름이 용을 따르듯 하였으나 선생과 더불어 견줄 자가 없었다.

³ 정도전은 1398년 이방원의 기습을 받아 목숨을 잃었는데, 이방원이 내건 그의 죄는 세자 방석과 함께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정도전은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섬긴 변절자 또는 처세에 능한 간신으로 비판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 살해된 정몽주는 죽은 지 13년이 지난 1405년, 그를 죽였던 이방원에 의해 영의정에 추증되며, 충절의 상징으로 조선왕조 내내 떠받들어졌다. 하지만 정도전은 사후 476년이 지난 후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경복궁을 설계하였던 공을 인정받아 공신 칭호를 돌려받는다.

생각 나누기

정몽주 vs 정도전



한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란 정도전과 정몽주는 이후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정도전은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세웠으며, 조선의 기본 체제를 설계하였으나 태종 이방원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하다가 역시 이방원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요. 여러분이 만약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구의 길을 따라 걸었을까요?

정도전과 정몽주의 삶을 잘 생각해 보고, 그들의 좌우명을 지어주세요.

정도전의 좌우명

정몽주의 좌우명

여러분은 정도전과 정몽주 중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1) 내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정도전과 정몽주는 모두 죽임을 당했지요. 만약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만난 사람들과 만날 사람들

생각 더하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만나 그들의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이색이라는 훌륭한 스승과 정몽주라는 친구를 만나 학자이자 유능한 정치가로서 성장합니다. 권문세족을 만나 유배를 가는 등 고난을 겪었으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하겠다는 마음을 더욱 크게 키웁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을 만난 것이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반대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름	나와의 관계	나→상대방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

▲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1)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적어봅시다.

(2)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떻게 변하고 싶은가요?

▲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_2

2차시



채제공



올바른 신념을 실천한 재상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영조, 탕평책 실시

균역법 실시

정조 즉위, 규장각 설치

대전통편 편찬

화성 완성

1725년

1750년

1776년

1785년

1796년

1720년

출생

1743년

문과 급제

1791년

신해통공 실시

1793년

영의정으로 제수

1799년

별세



1740년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1765년

와트, 증기기관 완성

1776년

미국독립선언

1779년

페르시아 통일

1789년

프랑스혁명

세계에는 어떤 일이?

현장 체험학습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 온 아이들

생각 열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정조의 명령으로 화가 이명기가 1791년 73세의 채제공을 그린 그림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초상화의 모습이 실제와 털끝 하나라도 다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당시 채제공의 눈 모양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는 조선시대 일반 초상화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 바로 손이 그려진 것이에요. 그 이유는 임금님께서 선물하신 부채를 표현하기 위해 손을 드러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당시 화가들은 초상화에서 손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사실적으로 표현한 데 비해 손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네요. 그림에는 선물하신 부채는 물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임금님의 은혜라는 채제공의 글씨도 적혀 있어요. 이 초상화는 채제공의 후손이 수원화성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누구나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재상은 아~무나 하나?



재상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재상은 관료의 중심이자 대표로서 임금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여 정치를 펼치기도 하고, 관리나 백성들의 의견을 임금에게 전달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명재상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은 황희입니다. 그가 명재상으로 꼽히는 이유는 황희가 정치적 소신과 원칙을 지켰으며, 배려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황희의 일화를 살펴볼까요? 황희가 이조판서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태종이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쫓아내고 자신의 후계로 셋째인 충녕대군(훗날 세종)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세자는 왕위를 계승할 미래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자의 교체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황희는 이런 결정에 반대하며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닌 동생을 세자로 세우는 것은 불행을 가져오는 근본이며, 지금 세자께서는 현재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훌륭한 임금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종과 대부분의 신하들이 결정한 일에 황희는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반대했고,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신을 높이 산 세종은 왕에 오르자마자 황희를 불러들여 중요한 관직을 맡겼고, 이후 20년 이상을 재상으로서 활약했어요.

영조와 정조 때를 대표하는 재상인 채제공도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데에는 황희 못지않은 분입니다. 채제공이 1758년(영조 34년)에 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도승지였을 때의 일입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위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승지는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직책이므로 당연히 신하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제공은 죽음을 각오하고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고 명령을 막았습다. 훗날 영조는 이런 채제공을 기억하면서 정조에게 “참으로 채제공은 나의 사심 없

는 신하이자 너의 충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조가 임금이 된 후 채제공은 정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개혁 정치를 함께 합니다. 1788년에 우의정으로 임명될 때의 일입니다. 채제공은 당시 정권을 잡은 봉당인 노론 소속이 아닌 남인이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조는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글을 써서 임명하였으며 반대하는 신하는 모두 파직시켰습니다. 다음 해에 좌의정이 된 이후 3년 동안은 영의정과 우의정이 없는 ‘나홀로 정승’으로서 나랏일을 돌보았습니다. 채제공은 73세의 나이에 영의정이 되었고, 79세의 나이에 병으로 사직하기 직전까지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임금에게 말하는 것, 특히 임금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임금이 그 일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할 때 이를 반대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채제공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개혁은 쉬지 않는다

관직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지금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고 싶은데 높은 관직으로 갈수록 자리가 적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무리를 만들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입니다. 학벌과 지연을 바탕으로 형성된 무리에서 서로 도와주니 큰 힘이 되었지요.

조선 후기에 이렇게 모인 무리를 봉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봉당끼리 학문과 나라 경영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하였으나, 차츰 자신의 봉당에 속한 사람들을 관직에 진출시켜 정권을 장악하는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영조는 이런 봉당간의 싸움이 왕권과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모든 봉당이 싸우지 않고 골고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탕평책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도 탕평책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탕평책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채제공입니다. 채제공은 봉당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이러한 채제공의 생각은 임금이었던 정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채제공의 큰 업적 중 하나가 신해년1791년에 시행된 통공정책이에요. 통공이란 일부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던 금난전권¹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조선 후기에 농업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공업도 발달했어요. 상공업이 발달하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많아지지요. 이들 상인은 한양에도 그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한양에는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상인이 있었습니니다.

채제공은 정조에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난전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² 금난전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전상인으로부터 이권을 챙기는 부

¹ 금난전권은 한양의 시전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전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가로 이러한 단속권을 부여받았다.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의 횡포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² 시전상인들이 싼값으로 역지로 물건을 사들이는데, 만약 물건주인이 듣지를 않으면 난전이라 신고하여 감옥에 갇히게 한다. 물건 주인은 눈물을 머금고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팔게 된다. 이렇게 사들인 물건을 몇 배의 가격을 가지고 파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살 곳이 이곳밖에 없으므로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난전을 허용해달라 한 것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패한 관리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채제공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이루어진 신해통공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가가 갑자기 전보다 내려갔다.”, “장작 가격이 옛날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등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물가 안정으로 인해 도시 빈민층의 삶이 향상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들이 보호받게 되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채제공과 정조의 개혁 정책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화성 건설

화성의 건설은 정조 때의 경제력과 문화 역량 그리고 과학기술이 총 동원된 사업이었습니다. 화성 건설은 단순히 성곽 하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양의 남쪽을 호위하는 성곽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서울을 호위하는 방어 도시가 남쪽에 없다는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왕의 직속부대인 장용영의 외영

을 화성에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정조는 아들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서 화성에 거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왕으로서 순조를 도와준다면 왕권이 더욱 강화되어 개혁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정조가 상왕이 되어 직접 통치하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긴 현릉원 옆에 화성을 세움으로써 아버지 옆에서 못 다한 효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성 건설의 총책임자인 화성유수로 10여년간 정승으로 자신을 보좌하던 채제공을 임명하였습니다. 1894년 2월 화성 건설은 정약용이 작성한 '성설城說'을 설계도로 하여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계를 개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채제공은 화성이 삼남 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수도 한양과 마찬가지로 시전을 설치합니다. 화성을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 화성에 상인과 장인들이 들어와 살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왕실의 자금을 이용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농장과 저수지를 만들어 농업 기반을 갖추었으며, 화성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의 큰 공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리나 정조는 화성 건설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모두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화성 건설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자는 관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제공은 마지막까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배려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건설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채제공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95년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화성에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한 것도 채제공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화성의 완성과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행사와 함께 군사훈련까지 실시하여 강력한 왕권을 보여줌으로써 백성과 신하들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성을 오가는 행렬 인원은 1,799명이며 말이 779필이나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그린 반차도를 보면 회갑잔치를 준비하고 운영한 채제공이 앞에서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차도의 앞부분

이렇듯 정조는 중요한 정책을 채제공에서 맡겼으며 채제공은 이를 훌륭하게 해 내었습니다. 정조가 채제공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는 그가 죽은 후 내린 시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채제공의 시호는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한다고 해서 '문文', 마음가짐을 과단성 있게 한다고 해서 '숙肅', 문숙입니다. 채제공은 그 시호처럼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자신이 세운 뜻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처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생각 나누기

탕평책의 장점과 단점



탕평책은 여러 봉당의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함으로써 봉당 간의 다툼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체제공은 왕권 강화가 정치 안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체제공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래 생각해 볼 점을 참고하여 탕평책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여 적어보세요.

생각해 볼 점

1. 왕권 강화와 정치 안정을 위해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하였지만 봉당의 다툼으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 왕권이 강화되면 왕에 따라 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면 태평성대가 되는 것이고, 연산군이 왕이 되면 흥청망청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3.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이전 시대에 비해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백성들의 삶도 향상되었습니다.

▲ 체제공이 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입니까?

▲ 탕평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탕평책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언제 용기가 필요한가?

생각 더하기

체제공은 평생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심지어 자신이 피해를 입더라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용기가 있을까요?

▲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이 생각하는 용기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적어보세요.

▲ 해야 하는 일인데 귀찮아서, 하기 힘들어서, 또는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 훗날 용기를 잃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일에 부딪친 미래의 나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보세요.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_크

크차시



정약용



내일의 기틀을 마련한 실학자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정조 즉위
규장각 설치

신해통공
(금난전권 폐지)

화성 완성

신유박해

평안도 농민전쟁
(홍경래)

1776년

1791년

1796년

1801년

1811년

1762년
출생

1783년
생원시에 합격,
정조를 만남

1801년
전라도 강진
으로 유배

1817년
『경세유표』 별세



1818년
『목민심서』

1819년
『흙흙신서』 완성

세계에는 어떤 일이?

1776년 미국독립선언

1779년 페르시아 통일

1789년 프랑스혁명

1803년 미국 배가 일본 나카사키에 들어와 통상 요구

1825년 영국, 세계 최초로 철도 개통

생각 열기

한국 기네스북 담당자와 오인석 씨



각종 분야에서 최고 기록을 인증하는 기네스북을 알고 있나요? 한국 기네스 기록을 담당하는 한국기록원은 2012년에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는 오인석 씨를 '가장 많은 글을 집필한 사람'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오인석 씨는 다양한 주제로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만 장의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책 쓰기'에서 이분을 빠트릴 수 없지요.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쓴 글은 조선시대에 활자로 출판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사(베껴서 씀)하여 읽었으며, 어떤 학자는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에서 백성들과 나라가 병들고 힘든 이유와 해결책이 모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으니 임금님께서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정약용이 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정약용,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정약용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정약용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정약용은 과학기술자로서 과학, 건축, 수학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28세에 과거에 합격한 그해 겨울에 맡은 임무는 한강을 건너는 데 사용될 배다리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배다리는

다리를 놓기 어려운 큰 강에 배를 나란히 붙여서 임시로 다리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한 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60척의 배, 연결을 위한 널빤지 2,100개, 공사에 동원된 군사의 숫자만도 1,000명이나 되었지요.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정약용은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¹

하지만, 과학기술자로서 정약용의 본격적인 모습은 화성의 설계와 건설에서 나타납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명에 따라 동양과 서양의 축성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진보시켜 화성을 설계하였고, 화성 건설을 위한 다양한 기계들을 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건설 기간은 2년 9개월로 단축되었고,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태어났다면 정약용은 아마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정약용은 9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중 6명이 어렸을 때 천연두와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은 정약용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흔하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정약용은 이러한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병을 연구하여 『마과회통』, 『종두설』 등 천연두를 예방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69세, 73세에 각각 효명세자와 순

¹ 정조처럼 배다리를 놓은 또 다른 임금은 조선 10대 임금이었던 연산군이다. 그는 청계산으로 사냥을 가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한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배다리를 만들게 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작은 배가 무려 800척이나 되었다고 하니 정약용이 설계한 배다리와 비교하여 설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반드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리라.

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불려졌을 만큼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명탐정 설록 홈즈나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의 수사관 같은 직업도 어울립니다. 정약용이 곡산부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김오선이라는 백성이 소를 사러 갔다가 강도를 만나 살해되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범인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범인의 흔적을 탐색해서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곡산부사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형조참의에 임명되서는 오랫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던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한 예로 함봉련이라는 사람은 7년 동안이나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들이 얽혀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기록을 자세히 살피고, 직접 죄수를 조사하여 상처 부위 등 명확한 증거 제시로 그의 무죄를 밝혀주었습니다.²

정약용은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교수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 후 성균관에 입학하였어요. 성균관에서는 매달 글짓기 시험을 봐서 합격과 불합격을 정했는데, 정약용은 거의 합격하였으며 자주 수석으로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1801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의 나이 39세.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어떤 일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유배기간 동안 오로지 학문 탐구에 매달렸습니다. 유배는 18년간이나 계속되었지만 그는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고 유배가 끝난 다음에도 탐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지은 책이 무려 182책 503권이나 된다니 대학교수에 어울리지 않나요?

²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이라는 영화는 김탁환 선생님의 『열녀문의 비밀』이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비리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잡아내라는 정조의 명을 받은 명탐정이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인데 대사를 통해 주인공이 정약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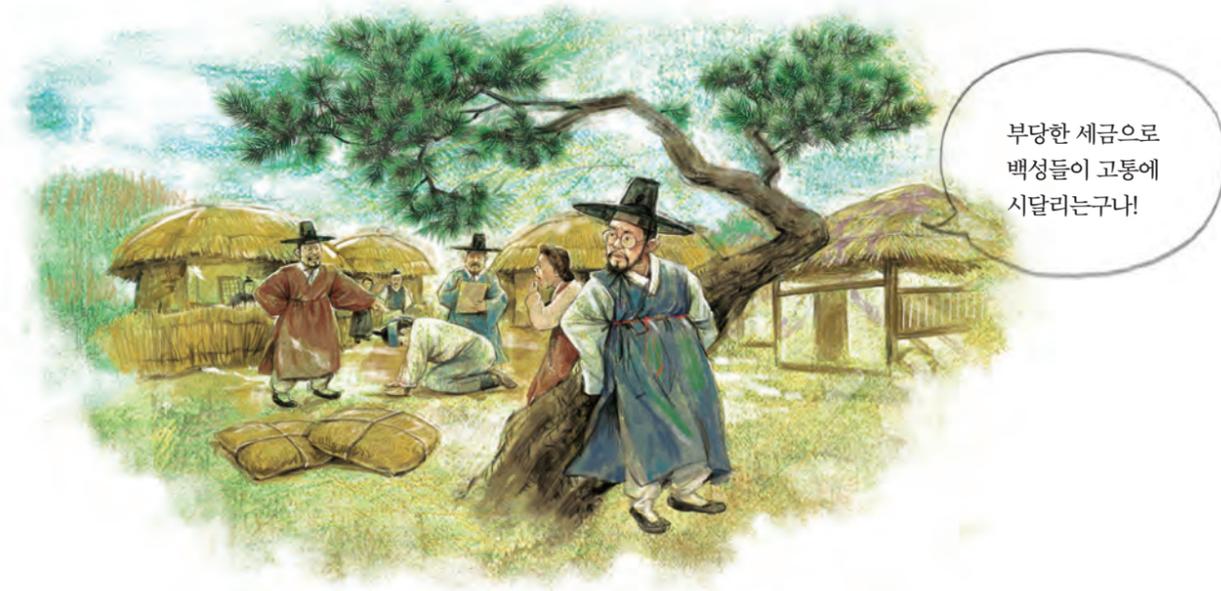
누구를 위한 지식 탐구인가?

정약용은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였고, 각 분야마다 엄청난 탐구를 한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고르라면 역시 훌륭한 정치사상가입니다.

정약용이 모든 분야를 걸쳐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부정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럼 정약용이 이러한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794년 정약용이 33살이 되던 해에 정조의 명으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비밀리에 지방 수령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약용의 임무는 이 해에 일어난 심한 흉년의 피해와 고을 수령들의 잘잘못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였지요.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많은 고을 수령들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가 앞으로 해야 할



부당한 세금으로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는구나!

역할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1797년에 곡산부사로 부임하는 길에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길을 막고 나타납니다. 그는 곡산에서 백성 1,000여 명과 시위를 일으킨 죄로 수배를 당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위를 벌인 이유는 아전이 세금을 200냥에서 900냥으로 대폭 올려 거두자 이에 반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곡산부사는 오히려 이계심과 백성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지요. 이계심은 새로 부임한 정약용 앞에 10여 가지로 자신과 백성들의 억울함을 정리하여 바쳤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검토한 다음 이계심에게 중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물리치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에 항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관이 현명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이계심을 칭찬하였습니다. 정약용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수령목민관으로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약용의 경험과 생각은 많은 책 중에서도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세유표』는 제도를 개혁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가난한 백성과 농민에게 국가의 세금을 모두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세금제도에 대한 비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과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기준과 사무를 제시한 책으로 “자신을 다스려라”, “공무에 봉사하라”, “백성을 사랑하라”는 세 가지 목민관의 기본 자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흠흠신서』는 형법에 관련한 책으로 특히 살인 사건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흠흠이란 삼가고 또 삼간다는 뜻으로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보호해야 하는 관료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지식을 나눈 위대한 스승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되었을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재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 유배를 온 정약용을 강진 사람들은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피했던 거지요. 하지만 술과 밥을 파는 주막집 여주인이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정

3 다산 정약용의 강진유배시절 제자로 그가 지은 시는 추사 김정희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저서에는 <치원유고>, <임술기 壬戌記>가 전해지고 있다.

약용을 피하고 있을 무렵, 주막집 근처에 살던 아전들의 자식들이 글을 배우러왔습니다. 정약용은 기꺼이 이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중에는 황상³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15살의 어린 제자 황상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자 황상은 도리어 물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공부를 못해요. 첫째 머리가 둔하고, 둘째 앞뒤가 막혀 답답하고, 셋째 어리석어서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황상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었을까요? 신분도 낮고 머리도 나쁘니 공부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풀이 죽어 있는 어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격려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머리가 좋아 잘 외우면 공부를 소홀히 하고, 글재주가 좋은 사람은 속도는 빠르지만 글이 부실하게 되고, 이해가 빠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세 가지 문제가 다 없으니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여라.

황상은 부지런하라고 말한 스승의 말을 평생 기억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약용이 “나의 제자 중 시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을 꼽으라면 황상이다.”라고 칭찬할 만큼 훌륭한 문장가가 됩니다.



정약용은 1808년부터 다산초당으로 집을 옮겨 10년의 유배생활을 더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18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수업은 질문과 대답, 그리고 토론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정약용이 역학을 강의하고, 강의 내용을 이해한 제자들과 토론을 벌여서 그 결과를 『다산문답』이란 이름의 책자로 엮어내었습니다.

정약용이 쓴 500여 권의 책은 한 인간이 평생 베껴 쓰기에도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18년 유배 생활 동안 복숭아뼈 있는 곳이 헐어서 세 번이나 구멍이 뚫릴 만큼 책상 앞에 앉아 연구와 책 쓰기를 한 정약용의 학문적 열정과 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제자들은 친척이나 양반자제, 아전의 자제뿐 아니라 승려들도 있었는데, 천문·농학·지리·역사·기술·외교·문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놓고 스승의 실학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18년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오히려 유배지에서보다 더 학문 연구와 책 쓰기에 열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쓴 글과 자신의 생각을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편지 교환을 통해 더욱 완성시켜나갔습니다. 비록 자신의 학문이 당장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후세에라도 활용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자신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인격을 수양하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모든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의 큰 꿈이었습니다. 학문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자신의 원대한 꿈을 위해 불꽃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간 정약용,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각 나누기

나만의 하피첩 만들기



하피첩은 붉은 노을빛 치마로 만든 편지라는 뜻입니다. 1801년 다산 정약용이 신유사옥으로 인해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을 가면서 부부 간의 이별이 시작되었어요. 유배 7년째가 되던 1806년 부인 홍씨는 특이한 선물을 귀양지로 보내는데, 시집올 때 입었던 붉은색 비단 치마였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를 담은 선물임을 알아차린 다산은 치마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치마를 재단해 편지를 만들고 4년에 걸쳐 두 아들과 후손들이 간직할 당부의 경구를 써서 보냈어요.

하피첩 중 두 아들에게 쓴 글을 볼까요?

“나는 벼슬을 하지 않아 너희한테 남겨줄 게 없다. 오직 두 글자의 놀라운 부적을 줄 테니 행여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 한 글자는 근면할 ‘근(勤)’이고, 또 다른 글자는 검소할 ‘검(儉)’이다.”

(1) 나만의 하피첩을 쓸 대상을 선택하세요.

(2) 하피첩을 쓸 의미 있는 물건을 선택하세요.(생각나지 않는다면 편지나 인형 등을 준비해도 좋고, 영상 편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3) 소중한 마음을 담아 ‘나만의 하피첩’을 제작하세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4) 하피첩을 전달한 후 느낌을 적어보세요.

함께 찾아봅시다!

생각 더하기

▲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아래 표에서 찾아 표시해 봅시다.

- 가. 제도를 개혁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내용의 책
- 나.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기준과 사무를 제시한 책
- 다. 정약용이 형조참의를 지낼 때 무죄를 밝혀주었던 사람. 살인죄로 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
- 라.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기록한 의학서적
- 마. 제자들에게 역학을 강의하고 함께 토론을 벌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책
- 바. 정조의 명에 의해 세워진 성. 정약용이 이 성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방	다	산	문	답	트	와	이
샘	탄	목	유	마	과	회	통
경	총	무	민	학	함	각	연
세	두	진	년	심	년	봉	경
유	소	년	단	단	서	정	련
표	뜨	김	연	아	회	조	문
안	위	흙	흙	신	서	부	화
녕	화	성	사	랑	해	요	광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_4

4차시



여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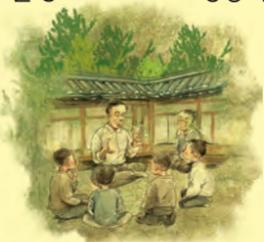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한 민족의 지도자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1897년	1910년	1918년	1919년	1945년	1948년
대한제국 수립	국권을 빼앗김	신한청년당 조직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1886년	1907년	1936년	1945년	1947년
출생	광동학교 설립	일장기 말소사건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조직	테러로 사망



세계에는 어떤 일이?

1863년	1868년	1911년	1919년	1941년
미국, 링컨 대통령 노예해방 선언	일본, 메이지유신	청, 신해혁명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태평양전쟁 발발

생각 열기

일장기 말소사건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을 때 손기정은 2시간 29분 19초로 당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습니다. 남상룡 선수는 동메달을 땀습니다. 이들의 메달 수상 소식은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주었습니다.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와 8월 25일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중앙일보》는 자진휴간에 들어갔으며, 《동아일보》는 무기정간을 당했습니다. 이때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 오늘 함께 이야기할 여운형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중앙일보》가 계속해서 신문을 내려면 여운형이 사장으로 물러날 것과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중앙일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폐간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되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여운형은 1885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태몽으로 태양을 품에 안은 꿈을 꾸어 할아버지가 아호¹를 '태양을 꿈꾸다'라는 뜻의 '몽양'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여운형은 할아버지가 지은 주신 아호대로 태양같이 뜨거운 신념과 실천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운형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였습니다.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제로 떠안긴 빛을 꼬투리 삼아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자, 우리 백성들의 힘으로 빛을 갹자는 국채보상운동²이 일어납니다. 여운형은 스스로 담배를 끊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금연 운동을 통해 나라 빛을 갹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³ 1908년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노비 문서를 불태워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의 재산이 넉넉한 편도 아닌 상황에서 노비를 해방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창호, 김창숙, 이승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은 평북 정주군에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1919년 교직원과 학생 전원이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일본은 독립운동의 본거지라 판단하여 학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안창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김창숙은 성주에 성명학교를 세워 민족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분들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가를 길러내는 것이 나라의 힘을 키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운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등 침략을 노골화하자 교육운동을 통해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907년 자신의 양평 집에 광동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청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¹ 어릴 때 부르는 이름.

²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갹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

³ 여러분은 담배를 피우며 노예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담배를 끊고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담배는 나라를 되찾은 뒤 다시 피울 수 있으나 빼앗긴 나라를 찾을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_1908년 양평 장터에서 '국채보상운동' 연설 중.

광동학교는 이곳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빛이 되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런 여운형에게 강릉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운형에게 가르침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으로 가서 초당의숙의 교사가 된 여운형은 미래를 준비하며 근대 교과목과 항일가요를 가르쳤습니다. 초당의숙뿐 아니라 동진학교와 공동으로 연합토론회를 개최하여 독립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초당의숙이 폐교되고 여운형은 강릉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제자들이 3·1운동 때 이 지역의 만세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여운형은 종로의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부장이 되어 야구팀을 이끌고 도쿄로 일본원정을 가기도 하였으며, 서간도에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 일본과 중국을 넘나들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여운형은 이를 통해 중국의 신해혁명을 눈으로 보고,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 무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1914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신념은 용기를 만든다

중국으로 건너간 여운형은 금릉대학지리의 난징대학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영, 중국의 공화국 설립 등 국제정세에 대해 공부하며 독립운동의 의지를 키워갑니다. 1917년 상하이로 건너간 여운형은 인성학교를 세워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자제를 교육하였으며, 한인들의 친목단체인 상하이거류민단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을 위한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뒤처리를 위한 승전국들의 회의가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조선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여운형은 신한청년당을 조직합니다.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보냈으며, 독립운동의 활성화와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 일본, 러시아, 중국 각지에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이 중 장덕수는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들과 접촉하였으며 이는 도쿄에서 벌어진 28독립선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운형은 국내에 들어와 이승백과 양전백을 만나는데 그들은 이후 기독교를 대표하여 31운동을 주도하는 민족 대표가 됩니다.

31운동 직후 상해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여운형은 외무위원장으로 외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여운형을 도쿄로 초대합니다. 31운동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습니다. 신한청년당과 31운동, 임시정부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한 여운형을 일본의 편으로 회유할 수 있다면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일본의 유화정책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협할 수도 있었으며, 일본의 회유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시정부 내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여운형은 동경으로 가기로 합니다.

첫 일정은 고가 장관과의 만남입니다. 고가 장관은 일본과 조선의 합병이 회사를 합치는 것과 같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여운형을 회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운형은 조선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일본의 조선 점령이 동양 평화를 해치고 나아가 동서양의 균형을 깨뜨려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정부 요인들과 면담하였으며 그때마다 조선의 독립을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데이코쿠 호텔에서 기자 회견이 열렸을 때에도 많은 기자들 앞에서 역시 조선 독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도쿄제국대학 요시다 사쿠조 교수가 초청한 모임에는 100여 명의 일본인과 수백 명의 도쿄대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운형의 연설에 공감한 오스기 사카에⁴가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 참석자 대부분이 합창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여운형은 일본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을 발각 뒤집어놓았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독립운동가로서 당당히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여론을 모은 일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여운형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하라 내각이 총사퇴하고 의회도 해산되었습니다.

여운형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혁명지도자 쑨원, 장제스, 마오쩌둥을 만났으며, 소련의 레닌과 트로츠키, 베트남의 호치민과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정치인과 만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정세를 바르게 읽고, 독립을 위한 노력을 쉬 없이 해나갔습니다.



⁴ 조선독립만세를 선창한 오스기 사카에. 일본의 작가, 사상가, 저널리스트로,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일본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이다. 세계 각지를 돌며 국제 연대를 꾀했던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동휘와 여운형 등과 직접 만나 국제연대를 꾀했으며,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치민과 연대하기도 하였다. _두산백과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

1929년 여운형은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끌려옵니다. 3년간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 그는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조선중앙일보》의 기사를 통해 총독부 정책과 친일변절자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탄압을 피하기 위해 신문 기사에서 일본의 농업정책이나 노동정책이 농민의 어려움을 크게 더했다는 점, 친일변절자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기정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언론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운형의 독립운동은 계속됩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운형을 회유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여운형이 끝까지 넘어오지 않자 1942년 여러 가지 죄를 갖다 붙여 구속합니다. 7개월을 갇혀 있던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⁵을 비밀리에 조직하여 독립을 준비합니다.

⁵ 1944년 8월 조선 독립을 목표로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조직.

1945년 8월 14일 광복 전날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여운형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국내의 일본인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치안을 포함한 행정권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 적임자로 선택한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조선총독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운형은 조직해두었던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아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 아직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15일 만에 전국에 145개의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운형의 철저한 준비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9월 8일 미국 육군 중장 존 하지가 7함대를 이끌고 들어오면서 미군정이 실시되고 모든 권한은 군정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군정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며 계획과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과 친일파가 그대로 관리로 일했으며, 일본군의 무장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족지도자들이 단합해서 해결해야 했으나 의견은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1946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놓고 민족운동 세력은 또 분열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모인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은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최대 5년간 소련, 미국, 영국, 중국이 우리나라의 나라 운영에 관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일본에게 지배받다가 이제야 독립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신탁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이 결정이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먼저 수립하자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운형은 강대국들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이용하여 분단되지 않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소련의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자 여운형은 민족의 힘을 한데 모아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규식 등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운형의 노력은 자신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 정치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운형을 경계한 정치 세력들의 테러는 계속되었으며,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은 혜화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살해당합니다. 그에게 가해진 11번째 테러였습니다.

여운형은 평생 조국의 독립,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통일 조국의 건설 등 오로지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여운형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하여 민족의 지도자이자 민족의 스승이었던 그의 삶을 나라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민족 해방의 날은 왔다. 우리 민족 해방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러뜨린 것은 이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자. 그리하여 이 땅을 참으로 합리적인 이상적 낙원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코 없애고 끝까지 집단적 일사불란의 단결로 나아가자.” _1945년 건국준비위원회 발족식 연설 중에서

생각 나누기

여운형의 선택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운형은 항상 민족을 위한 선택을 하였으며, 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길을 조금도 주저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 광동학교를 설립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하여 독립 연설을 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 《조선중앙일보》에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싶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에도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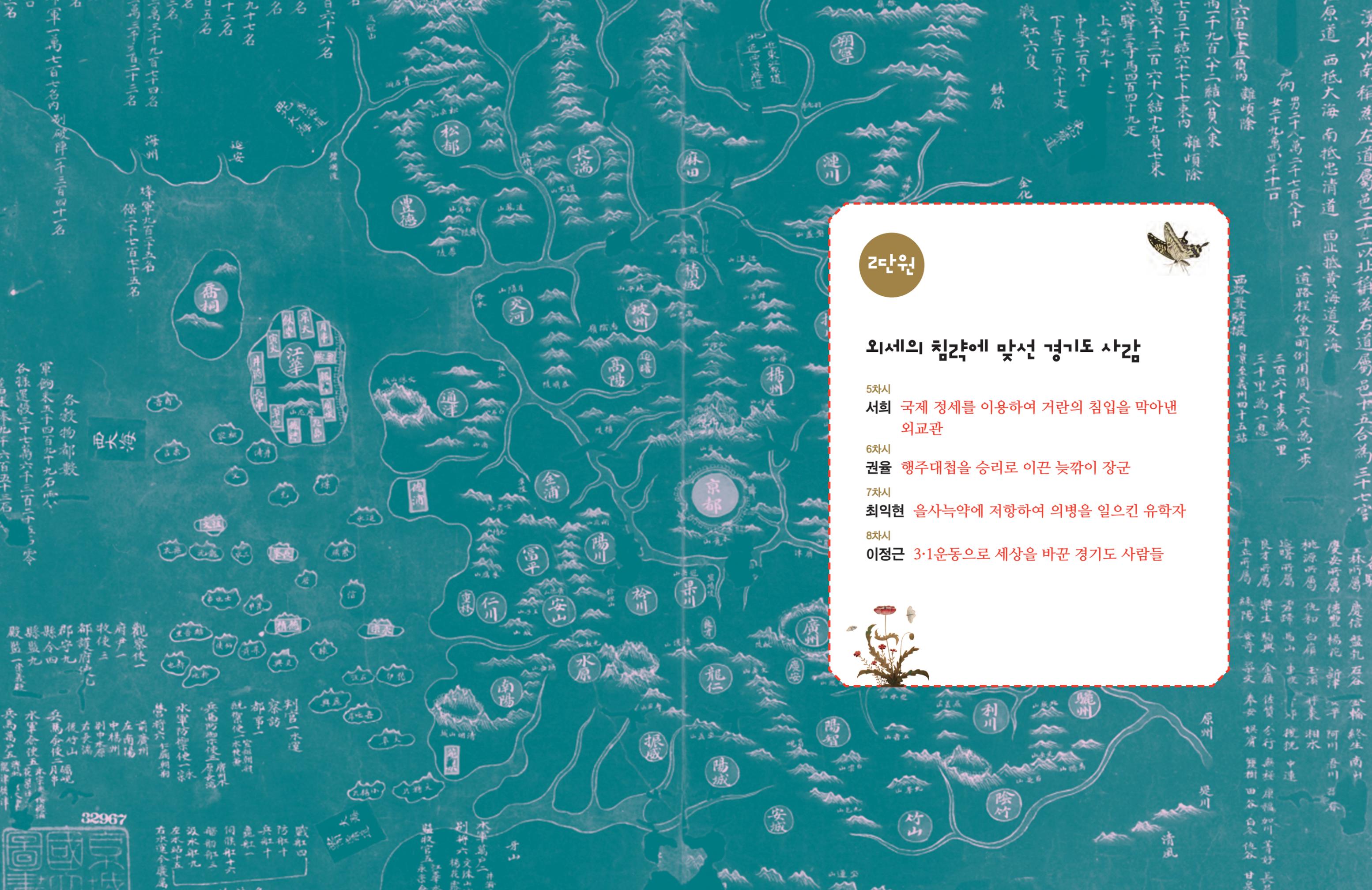
여운형 선생님의 어록을 나의 마음속에!

생각 더하기

여운형 선생님의 하신 말씀에는 그분의 치열했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뜻을 잘 생각해 봅시다.

- 가. 나는 혼자요, 저놈들은 방대한 무력을 틀어쥐
대적(大賊: 큰 도둑)이니 힘으로는 대비가 안 되지.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는 저놈들에게 빛진 것도
죄진 것도 없는 정당한 사람이요
저놈들은 조선에 대죄를 지은 강도들이다.
나는 정의요 저놈들은 부정의(不正義)이니
내가 저놈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지.
세상에 정의와 진리만큼 강한 무기는 없는 거야.
- 나.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고 다운되어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권투 정신은
우리 청년들이 의당 본받아야 할 훌륭한 정신이다.
남성답게 씩씩하게 싸우라. 비겁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스포츠맨십으로 싸우라.
나는 청년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무릇 청년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불가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다. 젖은 사람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내 뜻대로 살다가 잡혀 죽을지언정 시골에 은신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
- 라. 절망은 마음의 자살이라고 하였네.
밤이 지새면 새날이 밝는다는 거야.
엄연한 진리가 아닌가.
너도나도 작은 힘이나마 합쳐나가면 새날은 앞당겨질 거네.
- 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하든지 거기에 대해 기뻐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당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악평해도 내가 정당할 것이요,
내가 참으로 정당치 못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찬양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내 사람 됨됨이에 대해 참으로 알고자 한다면
나를 평하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라.
자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이지 참새떼들의 입방아는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네.

▲ 여운형 선생님의 말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을 말로 바꾸어봅시다.



2단원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

- 5차시 서희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외교관
- 6차시 권율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늦깎이 장군
- 7차시 최익현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학자
- 8차시 이정근 3·1운동으로 세상을 바꾼 경기도 사람들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_1

5차시



서희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외교관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고려
후삼국 통일

광종,
노비안검법 실시

광종,
과거제 실시

전시과제도
실시

거란,
고려 침략

936년

956년

958년

976년

993년

942년
출생

960년
과거에 합격

972년
송에 사신으
로 간 서희

993년
거란과 담판을
벌인 서희



916년

960년

962년

986년

1007년

거란족,
요 건국

조광윤,
송 건국

유럽 중부에서
신성로마제국
성립

노르만족,
북극 근처 그린란드
발견

복송,
화약 발명

세계에는 어떤 일이?

생각
열기

임금님표 쌀을 홍보하는
이천의 농부 서씨



게다가 무기질이 풍부한 지하수까지 더해져 밥을 하면 윤기가 활활 흐르는 쌀이 생산되는 거지요.



경기도 이천시는 맛있는 쌀로 유명하지요. 그건 구릉으로 둘러싸인 평야 지역에 자리잡은 지리적인 장점과 함께 이천을 가로지르는 한강 지류인 복하천의 맑고 깨끗한 물 때문입니다. 이천시는 교통도 편리해서 남북으로는 중부고속도로, 동서로는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전국 어디든 빠르고 편하게 오고갈 수 있어요. 고려시대의 관리로 거란의 침입을 뛰어난 외교로 막아낸 서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경기도 사람, 서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이천을 본관으로 한 서희는 누구?



여러분은 나이 드신 어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등을 이야기하지요? 그럼 어르신들은 점잖게 묻습니다. “본관은 어디냐?” 이렇게요. 본관이란 여러분 성씨의 시조 혹은 선조가 근거지로 삼은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성씨가 ‘김’씨인데 본관이 ‘경주’라면 우리 김씨의 시조가 경주를 근거지로 했다는 뜻입니다.

본관이 일반화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 전에는 성씨는 왕족만 가질 수 있었어요. 고려를 세운 왕건은 자신을 도운 지역의 힘 있는 세력에게 성씨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왕족뿐 아니라 힘 있는 집안도 성씨를 가질 수 있었으며, 성씨 앞에 자신의 근거지를 밝혀 자기 가문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본관을 밝히고 자신의 선조들 중 유명한 분들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지금의 나를 키워준 것은 8할이 ‘가문의 힘’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공부할 서희의 본관은 팔로 유명한 이천입니다. 이천 서씨의 시조가 서희의 할아버지인 서신일입니다. 서신일은 신라 말에 벼슬을 했었는데 나라의 힘이 다해 멸망할 것임을 알고 벼슬에서 물러나 경기도 이천의 효양산 기슭에서 조용히 제자를 기르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사슴 한 마리가 화살에 맞은 채 쫓겨 집안으로 뛰어 들어오자, 이를 불쌍히 여겨 화살을 뽑고 먹이를 주며 치료해주고 다시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당신이 구한 사슴은 나의 자식인데 그대의 은덕으로 살았으니 그대의 자손이 재상을 지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부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광종의 측근으로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내의령을 지내 집안을 일으킨 서필입니다.



그대의 성을
'이천 서씨'로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광종 11년(960년) 시행된 과거에서 19살에 급제한 서희는 뛰어난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살이 되던 해(972년)에 송에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송의 황제는 고려에서 온 서희를 처음에는 반기지 않았습다. 고려가 거란과 힘을 합쳐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은 것이죠. 서희는 여진과 거란이 육로를 막고 있어 외교 사절을 보내지 못했을 뿐이고 송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을 잘 설명합니다. 서희의 솔직하고 바른 태도와 뛰어난 말솜씨에 송 황제는 고려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서희에게 지금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검교병부상서라는 벼슬을 내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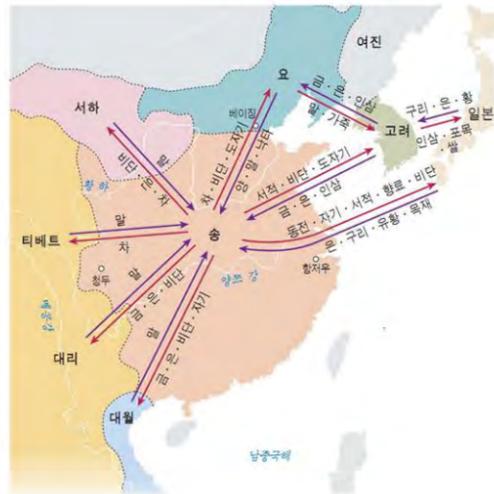
송에서 그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뚜렷하게 파악하고 왔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가 거란의 침입에 맞서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먼저 고려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고려가 건국될 당시로 돌아가봅시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들

고려를 위협하는 거란

개성에 도움을 정한 고려는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여 신라에 이어 다시 통일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외교 관계를 맺어요.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첫 번째 목표는 평화를 통한 나라의 안전, 둘째는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발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먼저 고려가 통일할 당시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고려의 북쪽에서는 거란이 916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뒤이어 송이 960년 건국되었지요.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나라는 송이었습니



10세기 무렵 고려의 주변 국가_동북아 역사넷

다. 고려는 “송과 친하게 지내고 거란은 배척한다.”는 정책을 펼쳤어요. 송도 크게 반가워했지요. 고려는 송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 발전에 활용하고, 송은 힘이 강해진 거란을 견제하는 데 고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된 것이지요.

게다가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펼쳐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란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거란이 보낸 낙타 50마리를 개경의 만부교에 묶어 굶겨 죽인 만부교 사건이랍니다.

만부교 사건 이후 고려와 거란의 사이는 점점 벌어졌어요.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어 지금의 베이징을 포함한 연운 16주의 땅을 차지한 후, 나라 이름을 ‘요’로 바꾸는 등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었습니

다. 송은 연운 16주를 가져오고자 거란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편 거란은 고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송과 친하게 지낸 고려를 항복시켜

송을 고립시킨 후 본격적으로 송과 전쟁을 벌일 계획이었지요.

마침내 993년 거란은 소손녕을 대장으로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 왔습니다. 기록에는 80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만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는 역사가들이 많아요. 소손녕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라며 고려를 위협합니다. 압록강을 건너 물밀 듯이 내려오는 거란군에 맞서 봉산군에서 고려군은 선봉장까지 붙잡히는 등 패배를 당합니다. 고려군의 패배 소식을 접한 왕과 신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고려 왕인 성종은 이몽전을 사신으로 보내 화해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소손녕은 화해는커녕 빨리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몽전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 벌어진 회의에서 신하들은 대부분 거란에게 서경자금의 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고 주장합니다. 왕조차 서경의 쌀을 모두 버려 거란군이 개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자고 합니다. 이때 항복에 반대하며 나선 인물이 바로 서희입니다.



개경 보정문 안에 있는 만부교. 만부교 사건 뒤에 낙타를 굶겨 죽인 다리라는 뜻으로 '탁타교'로 바뀌었다.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그린 탁타교 상상도.)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거란의 침입을 싸우지 않고 물리친 서희

서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란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서희는 알고 있던 거죠. 때마침 거란이 안용진을 공격하다 실패를 거듭하고 항복을 요구하자 서희는 소손녕과 담판을 하겠다고 스스로 청하였습니다.

소손녕과 맞서는 장면은 서희의 외교술이 빛나는 장면입니다. 왕의 국서를 들고 적의 진영에 들어가자 소손녕은 높은 대 위에 앉아서 뜰에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서희는 “신하가 군주에게 절하는 것은 아래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두 나라의 대신들이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소손녕은 계속 뜰에서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서희는 소손녕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사로 돌아와버립니다. 결국 소손녕은 서희에게 굴복하여 서로 뜰에 마주 서서 절하고 회견장으로 들어가 서로 마주 앉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는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등한 형식이 아니라면 내용도 동등할 수 없습니다. 서희는 이 점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와 소손녕은 드디어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갑니다. 회담 장면을 볼까요?



소손녕 : 그대 나라는 신라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땅인데 그대들이 침범하여 차지했다. 또한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송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만일 땅을 바치고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는다면 무사할 것이다.

서희 :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 거란과 교역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이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는다면 교류할 것이다. 이 말을 너희 임금에게 전하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다.

소손녕은 서희의 논리적인 말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손녕이 자신의 임금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거란의 임금은 서희의 요구를 받아들여기로 합니다.

7일 만에 돌아온 서희의 양손은 소손녕이 준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낙타 10마리, 말 100마리, 양 1,000마리, 비단 500필...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선물은 강동 6주의 땅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도 중국과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인 의주가 강동 6주에 속해 있지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서희가 획득한 강동 6주이다.

서희는 외교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관으로 선정되었어요. 그의 탁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밝은 눈이겠지요. 서희는 고려를 둘러싼 송과 거란, 여진의 세력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할 줄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그 위에는 세계 경제 2위, 인구수 1위의 중국이, 그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동해 건너에는 경제 4위의 일본이, 태평양 건너에는 한반도를 지렛대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용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세력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당히 나서는 눈 밝고 용감한 외교관이, 제2의 서희가 여러분 중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각 나누기

서희 vs 윤관



▲ 다음은 여진을 물리친 윤관 이야기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서희보다 약 10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윤관도 파평 윤씨라는 고려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고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친 유능한 관리였다. 12세기 거란의 세력이 약해지고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 고려와 국경에서 잦은 마찰이 있었다. 윤관이 여진 정벌에 나섰다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왔다.

윤관은 패배의 원인이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여진의 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왕에게 기병 중심의 특수 부대인 별기군의 편성을 건의하여 이를 실행시켰다.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한 후 다시 여진 정벌에 나서 여진족을 몰아낸 후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아 국방 수비를 강화하였다.

가. 서희와 윤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나. 서희와 윤관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외교관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서희가/ 윤관이) 더 뛰어난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내가 대한민국 외교관!

생각 더하기

▲ 외교관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가) 외교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 외교관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 전공은?

시험을 봐야 한다면?

필요한 능력은?

▲ 일본에 파견된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되어 다음 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봅시다.

독도 문제

2015년 일본은 11월 3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모든 초중등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쓰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녀상 철거 문제

2016년 일본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를 일본으로 귀국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 소녀상 이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없는 한 대사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_2

백자시



권율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늦깎이 장군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비변사 제도
확충

임꺽정,
반란을 일으킴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나뉨

임진왜란

이순신,
노량해전 전사

1538년

1560년

1579년

1592년

1598년

1537년
출생



1582년
문과 급제



1593년
행주대첩 승리

1599년
사망

1537년

1552년

1590년

1606년

1620년

세계에는 어떤 일이?

에스파니아,
잉카제국 정복

포르투갈,
마카오 점령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통일

일본,
에도막부 시작

누르하치,
후금 건국

생각
열기

광주왕실 도자기 축제를 찾아온 일본인 관광객



이곳 경기도 광주에서는 왕실에서
사용되던 최고급 도자기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습니다.

광주의 도자기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의 도자기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하하~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 간 수많은 도공들이
일본에 도자기 제작 기술을 전해준 사실을
모르시는군요.

이분들 덕분에 지금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도자기가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흑흑~
잘 있거라
내 고향.



여러분은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침략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도자기 기술자들은
조선에 감사해야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들도 이런
얘기는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조선시대 왕실의 도자기를 생산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도자기는 대부분 백자인데 백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질 좋은 고령토와 가마에 구울 때 연료로 사용하는 나무가 이곳 광주에 풍부했기 때문에 주요 생산지가 되었지요. 조선의 도자기를 부러워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끌려 간 포로는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도자기 제작 기술을 가진 도공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이라는 나라의 외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권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 임진왜란에 뛰어든다



권율은 강화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영의정까지 지낸 권철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일까요? 그는 과거 공부보다는 책을 읽거나 여행을 다니며 지리를 연구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죽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뒤늦게 과거 공부를 시작하여 45살의 나이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릅니다. 보통 30대 초반에 과거에 합격하던 당시의 모습을 볼 때 45살의 권율은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늦게 관직

에 오른 늦깎이였어요. 게다가 33명의 합격자 중에서 1등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하위에 속해 있었기에 출세가 보장된 중요한 자리를 맡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관직을 거치다가 서북쪽 끝의 의주를 관장하는 의주목사에서 해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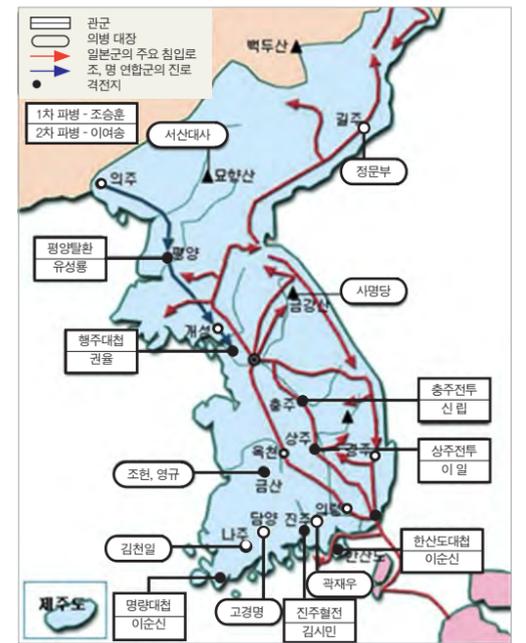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200년간 조선은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대교린의 원칙을 바탕으로 펼친 외교정책은 명과 여진, 일본 등의 주변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에서부터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포르투갈에서 수입하여 개조한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를 앞세워 총 2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갑작스런 일본의 침략에 조선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이 이끈 조선 부대가 대패하자 선조는 서둘러 한양을 비우고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결국 왜군은 부산에 들어온 지 불과 2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당시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꼬박 2주가 걸렸으니, 왜군은 진짜 '전쟁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한양을 빼앗은 것이죠.

원래 일본의 계획은 세 방향으로 공격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왕이 있는 한양을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내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방향은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 한양으로 진격, 또 한 방향은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마지막 방향은 배를 타고 바닷길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조가 한양을 비우고 의주로 피난하자 전쟁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병사들의 식량과 무기 등의 보급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약탈하여 물자를 보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권율은 55세의 나이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라도 광주목사가 되어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권율의 활약을 따라가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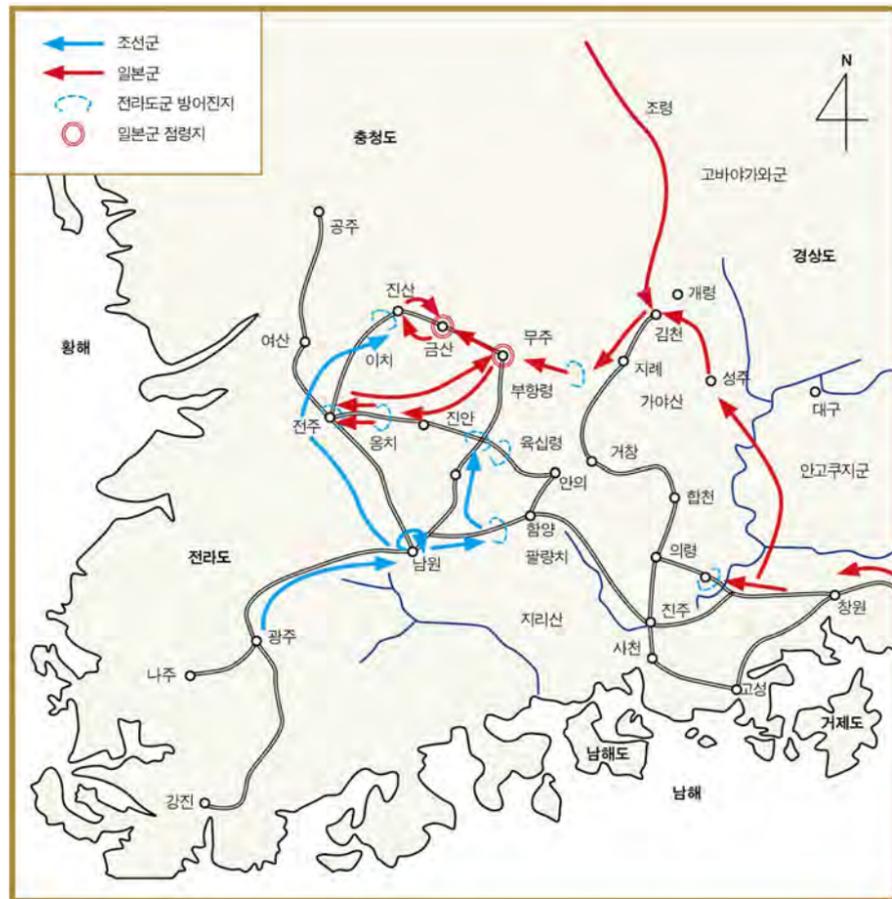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주요 진격로와 주요 전투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이치 전투와 독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1592년 6월,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한양을 되찾기 위해 전라도 지역의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싸우다 용인 부근에서 크게 패합니다. 이때 권율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잘 보존하고 광주로 퇴각합니다. 그리고 7월, 남원에서 1,000여 명의 군사를 모집해 금산의 이치에서 전주로 들어오려는 왜군의 부대에 맞섭니다. 고바야카와가 이끈 1만 5,000여 명의 왜군에 맞서 병력과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권율의 부대는 용감하게 싸워 마침내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치 전투 상황 지도. 진안을 넘어 전주로 오는 길의 험한 고개가 이치다. 권율은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10대 1의 불리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다.

이치 전투의 승리로 전주를 비롯한 호남 지방을 왜군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 한 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후 바닷길을 통해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의 작전을 박살낸 이순신이 이끈 해군의 승리가 더해지면서 남해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왜군이 발을 못 붙이게 된 것이지요. 일본에서도 이치전투를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이 승리한 주요 전투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하니, 일본의 전략을 허사로 만든 중요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해 가을 이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으로 전라감사로 승진한 권율은 한양을 되찾기 위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권율은 왜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보다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맞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수원의 독산성에 들어가 군대를 포진시켰습니다. 독산성에 포진한 부대에 수원부사 조정과 수원판관 홍계남이 이끈 수원의 군사 1,000여 명도 합류하였습니다.

독산성의 견고한 성곽을 바탕으로 권율은 전면적인 싸움을 피하고 수비에 치중하여 왜군의 공격을 5일 동안 왜군의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조총 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왜군에 맞서 성 밖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공격할 때에는 지형을 이용하여 주로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기병 수백 명을 준비시켰다가 성문을 열고 갑자기 돌격하여 화살을 적진에 퍼붓고 돌아오는가 하면, 힘 좋은 병사들을 도끼와 창, 모곡 등을 가지고 왜군이 지나가는 길에 잠복시켰다가 지나가는 왜군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밤에는 적진을 에워싸고 불을 피우고 나발을 불어 적을 놀라게 하는 소란 작전을 펼쳐 적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독산성 밖에 있는 의병과 연락하여 이들로 하여금 독산성 외곽에서 밤낮 없이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적진 주변을 돌아다니는 작전을 펴서 왜군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결국 왜군은 병사들만 희생시킨 채 과천을 거쳐 한양으로 도망갑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조선군이 왜군을 상대하는 전술은 전면전을 벌이는 방식보다는 지형을 이용한 기습 작전과 성을 중심으로 지키면서 싸우는 방식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전술의 변화를 바탕으로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왜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가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입니다.



권율 장군 이치대첩비. 1866년 세운 비석을 일제가 1944년 폭파시켰다. 지금 비석은 1964년에 새로 세운 것이다.



독산성 정상의 세마대. 왜군에 맞선 권율 장군이 성 안에 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말 등에 흰 쌀을 끼얹어 씻기는 흉내를 내서 왜군을 속여 퇴각하게 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그러나 한겨울에 말을 물에 씻기는 흉내를 내서 왜군을 속였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다

독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친 권율은 조선을 돕기 위해 내려오는 명군과 연합하여 한양을 되찾기 위해 행주산성으로 군사를 옮겼습니다. 행주산성에는 이틀 동안 목책을 이중으로 세워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왜군은 행주산성의 권율 부대를 없애지 못하면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행주산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때 행주산성의 병력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무기를 든 스님(승병이라고 합니다) 1,000여 명을 포함해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1593년 2월 어느 날 새벽, 우키타의 지휘 아래 3만여 명의 왜군이 7개 부대로 나누어 행주산성을 공격합니다. 조선군은 성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중으로 두른 목책과 함께 아래에서 올라오는 왜군을 공격할 화포와 석포가 있었습니다. 왜군의 첫 공격은 조선군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첫 번째 성벽을 넘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분노한 우키타가 직접 지휘한 두 번째 공격은 더욱 거세서 1차 성벽을 넘어 2차 성벽까지 왜군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권율이 지휘하는 조선군의 반격으로 오히려 우키타와 이시다 등이 부상을 입고 왜군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진 공격은 더욱 거세어 2차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승병들의 활약으로 결국 물리쳤습니다. 막바지 전투에서 조선군과 왜군은 서로 뒤엉켜 백병전을 치렀습니다. 승병을 무너뜨리고 성 가까이 진격한 왜군을 향해 무기가 떨어진 조선군은 아녀자들이 날라준 돌까지 던지면서 싸워 마침내 왜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유명한 행주대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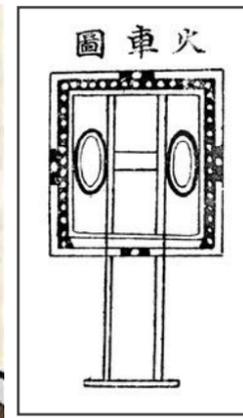


하늘에서 본 행주산성의 모습. 한강을 끼고 있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행주대첩 민족 기록화. 목책을 사이에 두고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그렸다.

하지만 행주대첩의 승리를 부녀자들까지 한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은 운동경기에서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해설자의 말처럼 허황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절실히 승리를 원하는 전쟁터에서 기술과 체력 등의 실력이 앞서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행주대첩 승리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변이중이 개발한 화차 등 왜군보다 우수한 무기에 있었습니다. 변이중이 임진왜란 중에 개량한 화차는 네 방향에 방호벽을 설치하여 적의 조총 공격으로부터 우리 병사를 보호하고, 세 방향에 승자총통을 설치하여 앞은 물론 좌우 측면까지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율은 이 화차 40대를 지원받아 성벽에 설치하여 공격하는 왜군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왼쪽 행주치미를 연관시킨 행주산성 축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_경기관광공사

오른쪽 변이중 화차도, 사방이 막힌 수레 위에 앞면과 좌우측에는 총통이 설치되어 방어력과 공격력을 강화하였다.
_한국콘텐츠진흥원

행주대첩의 공로를 인정받아 권율은 전쟁을 총괄하는 사령관인 도원수에 오릅니다. 그리고 왜군이 마침내 물러나는 1598년까지 군사를 지휘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해, 권율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의정으로 추증¹되었고, 선무공신 1등에 충장공이라는 시호²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을 세운 장군들은 공신이 되어 많은 상을 받았고, 역사책에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길이 이름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주대첩에서도 권율 혼자 화포 쏘고, 활 쏘고, 창 휘두르고, 심지어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 돌을 던지는 일을 다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펼쳐 일어난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왜군을 몰아낸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¹ 관직에 오른 사람이 죽은 뒤 벼슬을 올려주는 일.

² 왕이나 사대부가 죽은 후 나라에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내려주는 이름.

생각 나누기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



▲ 다음은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가장 공이 클까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공신의 종류	호성공신	선무공신
한 일	한양에서 의주까지 임금을 모시며 따라 다닌 신하들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운 장군들과 군량을 요청하러 다닌 사신들
1등 공신	이항복, 정근수	이순신, 권율, 원균
2등 공신	이후, 이부(왕자들), 이원익, 윤두수, 심우승, 이호민, 윤근수, 유성룡, 김응남, 이산보, 류근, 심충겸 등 29명	신점, 권응수, 김시민, 이정암, 이억기
3등 공신	허준, 정탁, 이현국, 류희림, 임발영, 기효복, 최응숙, 최빈, 여정방, 이응순, 절신정, 이수근, 강인, 김기문, 민희건, 이연록, 김응수, 오치운, 김봉 등 55명	정기원, 조경, 권준 등 10명

가) 어떤 일을 한 공신의 숫자가 가장 많나요?

나) 공신 책정이 올바르게 되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공이 큰 사람은 누구인지 쓰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

생각 더하기

▲ 다음은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조선의 무기들입니다. 무기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선조 때 이장손이 발명. 표면은 무쇠로 둥근 박처럼 생겼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타들어가 내부의 화약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날카로운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사람이나 말에게 상처를 입힌다. 가장 큰 특징은 폭발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1555년 을묘왜란 이후 개발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선. '판옥'이란 배의 갑판 위에 올린 군사 지휘용 망루를 말한다. 배 밑이 평평하여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방향을 바꾸기 쉽고 배가 튼튼하다. 또한 사방에 설치된 화포의 위력이 왜군의 배보다 훨씬 뛰어났다.



철공을 화약의 힘으로 날려 적의 배나 성벽을 부수는 대포의 일종.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꾸준히 개량되어 대량 제작되었다.

왜군의 우수한 무기인 조총, 그리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된 무기의 사용 등으로 7년간의 전쟁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상대 국가보다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전쟁을 피하거나 전쟁의 피해를 없앨 수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적인 무기의 개발로 인해 전쟁의 위험과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지닌 핵무기가 지구촌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기의 개발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필요한 과학기술

필요한 이유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감_크

7차시



최익현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학자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강화도조약 체결

동학농민운동 발발

러일전쟁

을사늑약 체결

군대 해산

1876년

1894년

1904년

1905년

1907년

1833년

1876년

1896년

1906년

1906년

출생

개항 반대
도끼상소

일본 배격 상소

태인에서
의병 봉기

대마도 순국



세계에는 어떤 일이?

1868년

1894년

1902년

1904년

1905년

일본,
메이지 유신

일본,
청일전쟁 승리

영국,
일본과 동맹 체결

일본,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 체결

인도,
영국에 반대하는
민족 운동 발발

생각
열기

용문사를 찾은 선생님과 학생들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역사 깊은 사찰입니다. 신라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랍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으로부터 벼슬을 하사받기도 했어요. 조선시대까지 왕실로부터 사랑받았던 이곳은 1907년 일본인들에 의해 건물이 불에 타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침략에 맞서 일어난 의병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의병의 본거지를 축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에 맞서 목숨을 바치며 싸운 의병들의 기개마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일어난 의병장 최익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거침없는 상소로 내가 위하는 마음을 전하다



최익현은 경기도 포천시 내북면 가채리에서 양반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른 양반집 아이들처럼 6살부터 글공부를 시작했는데, 13살부터는 이항로를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에 나섰죠. 스승은 제자가 평생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선생은 많아도 진정한 스승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항로는 서양

열강 등 외세의 접근을 침략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전통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쫓아낸다.”라는 의미인데 당시 성리학자들에게 바른 것은 유학을 비롯한 전통 사상과 질서, 사악한 것은 서양의 문물과 사상이었습니다. 스승인 이항로로부터 ‘면암’이라는 호도 받았고, 결혼까지도 이항로의 도움을 받은 최익현에게 이항로는 진정한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22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공직에 들어선 최익현 역시 스승의 뜻을 받들어 평생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합니다. 특히 그는 나라의 정책이 불의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바로 잡기를 요구했습니다. 경복궁 중건 등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한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5년 후에는 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다시 올려 결국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제주도로 다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1876년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최익현은 도끼를 옆에 놓고 경복궁 궁궐 앞에 엎드려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도끼를 옆에 놓은 이유는 신하로서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라리 도끼로 자신의 목을 쳐달라는, 죽음을 각오한 굳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상소에서 일본의 무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본의 침략을 계속 받게 될 것이란 점, 일본과 서양 세력은 같은 무리들이어서 우리의 전통 사상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은 체결되었고 이번에는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고향인 포천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종과 정부에 실망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제가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친일내각을 앞세워 단발령을 선포하는 등 을미개혁을 벌인 것입니다. 그는 친일내각에 의해서 외세의 의도에 따라 시행되는 개혁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들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키다

그의 걱정처럼 나라의 운세는 점점 기울고 그에 반하여 일제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한편 미국과 가쓰라-테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11월 고종을 위협하고 친일파를 앞세워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합니다. 을사늑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정치를 마음대로 할 권리를 차지합니다. 외교권을 빼앗기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익현은 일제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의 무효와 을사오적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일제의 침략을 소리 높여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74세의 나이 든 몸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키기 위하여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선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1906년 6월 4일 전라북도 태인의 무성서원의 명륜당 앞, 각지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마당은 짝 차고 서원 바깥까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곳에 모인 선비들을 향해서 최익현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의병을 일으켜 함께 싸우자고 호소합니다. 그의 연설을 잠깐 들어볼까요?

왜적이 국권을 빼앗고, 역신이 화를 빚어내어 5백년 종묘사직과 3천 리 강토가 다 없어지게 되었으며, 임금은 나라 잃을 화를 면하지 못하고 백성은 모두 어육의 참혹한 화를 당하게 되었다. 옛 신하인 나는 진실로 종사와 백성의 화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힘을 헤아리지 않고 대의를 천하에 펴고자 하니 성패와 이해는 예견할 수 없지만 내가 전심으로 나를 위해 죽음을 생각하고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천지신명이 도와서라도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그의 연설에 감동한 80여 명의 선비들이 그 자리에서 의병에 합류합니다. 80여



전라북도 태인의 무성서원 명륜당 모습. 74살의 최익현은 대청마루 위에 서서 수많은 선비들을 향해 눈물 어린 연설을 했다.

명의로 시작된 의병은 정읍을 거쳐 순창에 가는 동안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라 지키는 마음만 가득한 양반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무기를 갖추고 싸울 병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의병 진압에 나섰고, 최익현을 비롯한 의병 지도부는 체포되어 일제 헌병대에 넘겨져 서울로 끌려갑니다. 1906년 8월 14일 일제는 최익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본의 대마도로 끌고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 높은 학자이자 민족운동의 지도자인 최익현을 나라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는 것이죠. 이는 영국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 이집트의 민족 영웅인 아라비 파샤를 인도 남쪽의 실론 섬에 가둔 것을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민족 영웅 아라비 파샤 (1839~1911).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라는 구호 아래 영국군과 맞서 싸우다 잡혀 18년간 실론 섬에 유배되었다.

대마도에서 머리카락을 일본식으로 자르라는 요구에 항거하여 “쌀 한 톨도 왜놈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단식으로 저항합니다. 대마도주의 사과와 단식을 거두라는 왕명을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지만 단식으로 몸이 약해진 그는 결국 병이 들어 1907년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 나이 74, 죽음은 애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하여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은 양평의 의병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또래로 보이는 소년부터 나이 든 아저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차림새는 모두 다르지만 비장한 눈빛은 한결같네요. 이 사진은 캐나다 출신 신문기자인 맥켄지 Mckenzie, F. A.가 1907년 8월 경기도 양평(당시 지명은 양근)의 의병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찍은 것입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의 아시아 특파원으로 온 그가 본 것은 일본의 침략에 고통받는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싹 트는 법입니다. 군대가 해산되자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여 의병의 규모와 전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양평의 의병 속에도 칼을 든 대한제국 정규군 복장을 한 젊은이가 보입니다. 아마 군대 해산 후 의병에 가담해서 이 부대의 지휘관 역할을 했겠지요? 맥켄지는 의병장을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의병을 어떻게 조직했냐고 묻자 “양평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이 무기와 보급품을 마련할 기금을 은밀히 의병장에게 건네면 의병장이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야간에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보초를 세우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보초는 필요 없어요. 주위의 한국인 모두가 우리를 위해 감시해주고 있습니다.”라는 자신감 있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결국 무기를 들었든 들지 않았든 우리 민족 모두가 의병이라는 사실에 맥켄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1907년 8월 경기도 양평의 의병 모습.

1904년 일어난 러일전쟁부터 동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근무한 맥켄지는 일본의 막강한 전투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능 낮은 의병들의 무기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의병장의 답변은 벅찬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정미의병은 1907년부터 1909년 후반까지 약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1908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략 10만여 명의 의병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와 싸우다 1만 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군 전사자의 수가 100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병의 항쟁이 ‘커다란 수레바퀴에 맞선 사마귀’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싸움이었다는 냉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맥켄지가 만난 의병장은 비록 이름 없이 묻히더라도 침략자에게 무릎 꿇고 사는 운명을 택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옳은 일어난 양평의 의병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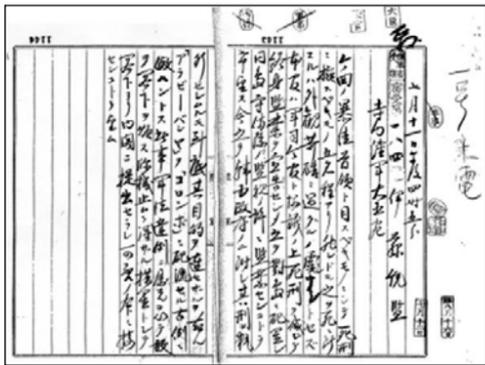
저는 영국 데일리 메일의 아시아 특파원 맥켄지입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의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 경기도 양평의 의병을 찾았습니다. 의병들을 만나 보시죠.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반 출신으로 의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입니다. 또 나이 어린 친구는 일제의 총칼에 부모님을 잃고 의병에 들어왔습니다.

생각 나누기

최익현이 대마도로 끌려간 까닭은?

▲ 다음 문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이 전보에는 을사의병을 대마도로 끌고 가서 철저히 가두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대마도로 끌려간 최익현은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일제가 의병장들을 대마도로 끌고 간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육군 대장에게 보낸 문서_출처: 독립기념관

▲ 다음 대화를 보고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의 의견이 타당한지 말해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창현 : 을사의병 당시 최익현 부대를 포위한 군대는 우리 군대였어. 최익현은 의병을 포위한 군대에게 같이 일제에 대항해 싸우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 의병을 진압한 우리 군대라니 용서할 수 없어.

지연 : 하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병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맞설 수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창현 : 부당한 명령이라면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무리 명령이라고 해도 같은 민족, 그것도 나라를 위해 일어난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해.

지연 : 1년 후 1907년 일제가 군대를 해산시키자 많은 군인들이 의병 활동을 벌이지. 최익현의 의병 부대를 진압했던 군인 중에도 나중에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군인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창현 / 지연)의 의견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때 의병장이었다면 ...

생각 더하기

▲ 다음은 최익현 선생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모두 별로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왜적이 국권을 빼앗고, 역신이 화를 빚어내어 500년 종묘사직과 3,000리 강토가 다 없어지게 되었으며, 임금은 나라 잃을 화를 면하지 못하고 백성은 모두 어육의 참혹한 화를 당하게 되었다. 옛 신하인 나는 진실로 종사와 백성의 화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힘을 헤아리지 않고 대의를 천하에 펴고자 하니 성패와 이해는 예견할 수 없지만 내가 전심으로 나를 위해 죽음을 생각하고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천지신명이 도와서라도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1) 여러분이 의병장이 되어 경기도의 의병을 모집할 격문을 만들어봅시다.

2) 의병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목표와 행동 강령입니다.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의병의 행동 강령을 정해 봅시다.

○○○의병 부대의 행동 강령	
1. 목표	우리 ○○○부대는 _____ 를 목표로 활동한다.
2. 의병의 임무 세 가지	----- ----- -----
3. 병력을 모집하는 방법	----- ----- -----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_4

묘차시



이정근



3·1운동으로 세상을 바꾼 경기도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국권 피탈, 조선 총독부 설치 신민회, 105인 사건으로 해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좌진, 청산리대첩 승리로 이끔 김상옥,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1856년
출생

1905년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옴



7개면에
한학학교 설립



발안장터 시위 중
일본 경찰의 칼에
사망



세계에는 어떤 일이?

중국,
신해혁명

유럽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러시아혁명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조약
 체결

워싱턴회의

생각
열기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찾은 교사와 학생들



해마다 안성을 비롯한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3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안성의 만세 소리는 더욱 우렁차요. 1919년 4월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전개된 안성군 양성면과 원곡면 주민들의 만세시위는 일제의 통치기관을 습격한 경기도 최대의 무력 시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성과 발안 등에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31운동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3·1운동과 경기도



일제는 의병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친일파들과 협력하여 마침내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우리 민족을 지배하였습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은 한마디로 ‘무력을 앞세운 무단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병경찰을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거리낌 없이 휘둘렀습니다. 근대 시민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 권력이 국

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죄인일지언정 때리는 형벌인 ‘태형’은 대부분 폐지되지요. 조선에서도 갑오개혁 이후 폐지된 태형을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만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의 명목으로 토지를 약탈하여 가난한 조선인 농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진행된 무단통치에도 우리 민족은 지치거나 굴복하지 않았

어요. 오히려 차곡차곡 분노와 힘을 쌓아 한 방에 터뜨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침 1919년 1월 고종황제가 사망하자 일본이 독살시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제에 대한 반발이 커 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 소련 등에 의해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정한다’는 민족자결주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민족지도자

고종의 사망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일본 도쿄 유학생의 2·8독립선언

3·1운동

들과 학생들이 모여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려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만세운동이 기획된 것입니다. 33인의 민족지도자와 학생들이 시작한 만세운동의 물결은 곧 전국으로 퍼집니다. 일제가 한국에서의 수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깔아놓은 철도가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각자 독립의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오른 것입니다. 철도역 주변의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다시 농촌 지역으로 기세가 꺾이거나 끊기지 않고 만세시위는 확대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만세시위 날짜를 대부분 장이 서는 날로 정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었죠. 경기도에서는 개성의 한영서원 학생들이 3월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수원에서도 3월 1일 화성의 화홍문에서 일어난 시위를 시작으로 만세시위가 퍼졌습니다. 강화군, 인천, 고양군, 양평군, 파주군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3월 하순에는 고양·시흥·광주·양주·부천·김포·수원·용인·안성·이천·양평·가평·포천으로 확산되었으며 4월에는 진위·여주·연천·장단으로 퍼져나가 경기도의 20여 개 시군 중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지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세시위가 확산되면서 규모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리 단위에서 벌어지는 시위들을 묶어서 면 단위, 군 단위로 합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나와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태극기를 권 손에, 독립선언서를 뿌리는 팔에, 독립만세를 부르짖는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리게 마련이거든요.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에서만 282회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16만여 명이상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전국 13개 도 가운데서 가장 활발한 것이었습니다.

일자	3.1 ~ 3.10	3.11 ~ 3.20	3.21 ~ 3.31	4.1 ~ 4.15	계
시위 횟수	11회	14회	81회	76회	182회
참여 인원	5,460명 이상	22,800명 이상	84,045명 이상	166,877명 이상	279,182명 이상



1919년 3월 1일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만세를 처음 외친 탑골공원의 팔각정 _문화재청

경기도의 3·1운동 일지. 경기도는 전국 13개 도 가운데 가장 활발한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역사 속으로
이야기들

경기도 최대의 무력시위, 안성의 4·1 만세항쟁

4월 1일 저녁 8시경 원곡면에는 1,0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등불과 횃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면사무소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후 양성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양성면과 경계인 성은고개(현재 안성3·1운동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이제는 '만세고개'라고 불리움)를 넘어 양성면의 동항리로 진출하여 양성면 주민과 합세합니다. 2,000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일본 경찰이 있는 주재소 앞에서 만세를 부른 후 주재소를 불태우고 이어서 우편소와 면사무소의 집기와 물품, 서류 등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이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을 공격하였습니다.

일제에 협력한 면장을 끌어내 선두에 세우고 일본 경찰이 있는 양성 주재소로 쳐들어갑시다!



안성시 원곡면의 안성 3·1운동 기념관. 해마다 4월 2일에는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다음 날 새벽, 시위대는 다시 성은고개를 넘어 원곡면으로 돌아가 원곡면사무소를 공격하여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이들간의 가슴 벅찬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아침 식사를 한 후 평택의 경부선 철도를 파괴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일본 수비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해산합니다.

4월 3일, 원곡과 양성 지역에 조선주차군 제20사단 보병 제40여단 제79연대 소속 장교 이하 25명의 군대와 경찰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일제는 시위대를 잡기 위해 비열한 수를 씁니다. 원곡면장을 시켜 시위대가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준다고 약속하고, 4월 19일 지금 원곡초등학교 뒷산으로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가족, 친지들의 설득에 4월 19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본헌병대는 모인 사람들을 몽둥이로 무조건 때리고 이에 저항하거나 도망하는 사람은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상투를 묶어 안성경찰서까지 30여리 길을 끌고 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일본군은 6월 1일 경찰관들과 함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을 체포하여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폭행에 맞아 죽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4월19일까지 모두 모여서 경찰서장의 연설을 들으면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서 모이세요.



일본놈들의 간교한 꾀에 속았구나...

일제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24명의 안성농민이 목숨을 잃었고, 127명의 농민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 중 이희권, 이양섭은 체포되고 최은식, 이덕순, 이근수, 이유석, 홍찬섭 등은 몸을 피했으나, 나중에 최은식은 주민의 신고로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위 중 파괴되거나 불에 탄 주재소와 우편소, 그리고 일제 상점 등 재산에 대한 배상과 일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켜 경제적인 고통까지 모두 주민에게 안겨주는 보복을 했습니다.

안성군 원곡면과 양성면의 총 세대수가 1,200여 호에 불과했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2,000여 명이나 되었으니 한 집에 두 명꼴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에 손바닥 한 개, 발자국 한 개 얹은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외친 '독립만세'의 함성이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마침내 일제의 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고, 멀리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발안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정근과 제암리 학살사건



화성리 장침리 이정근 선생 유적지에 있는 노래비. 이정근 선생이 지은 '3·1 독립가'가 새겨져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의 물결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까지 퍼집니다. 3월 31일 화성시 향남면 발안에서는 이정근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군중들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제암리의 주민들도 이때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이정근은 관직에 올랐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화성군의 7개면에서 한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어 교육 사업을 벌인 분입니다. 그는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시위대의 맨 앞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때 출동한 일본 경찰이 쏜 총탄에 사람들이 부상당하자 시위대는 돌맹이를 던져 일본인 순사부장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이정근도 일본 경찰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투쟁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져 주민들은 장날이면 만세를 외치고, 밤에는 뒷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부대는 순사 1명과 순사보 조희창, 사사가 등의 안내를 받으며 제암리 마을로 들어옵니다. 당시 제암리는 '두령바위'로 불리는 곳으로 천도교 신자와 감리교 계통의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사는 33가구의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세운동을 진압하며 너무 심한 매질을 한 것을 사과하려고 왔다."고 하며 제암리 주민 중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위_불타 버린 제암리 교회_독립기념관 제공
아래_학살에 넋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_독립기념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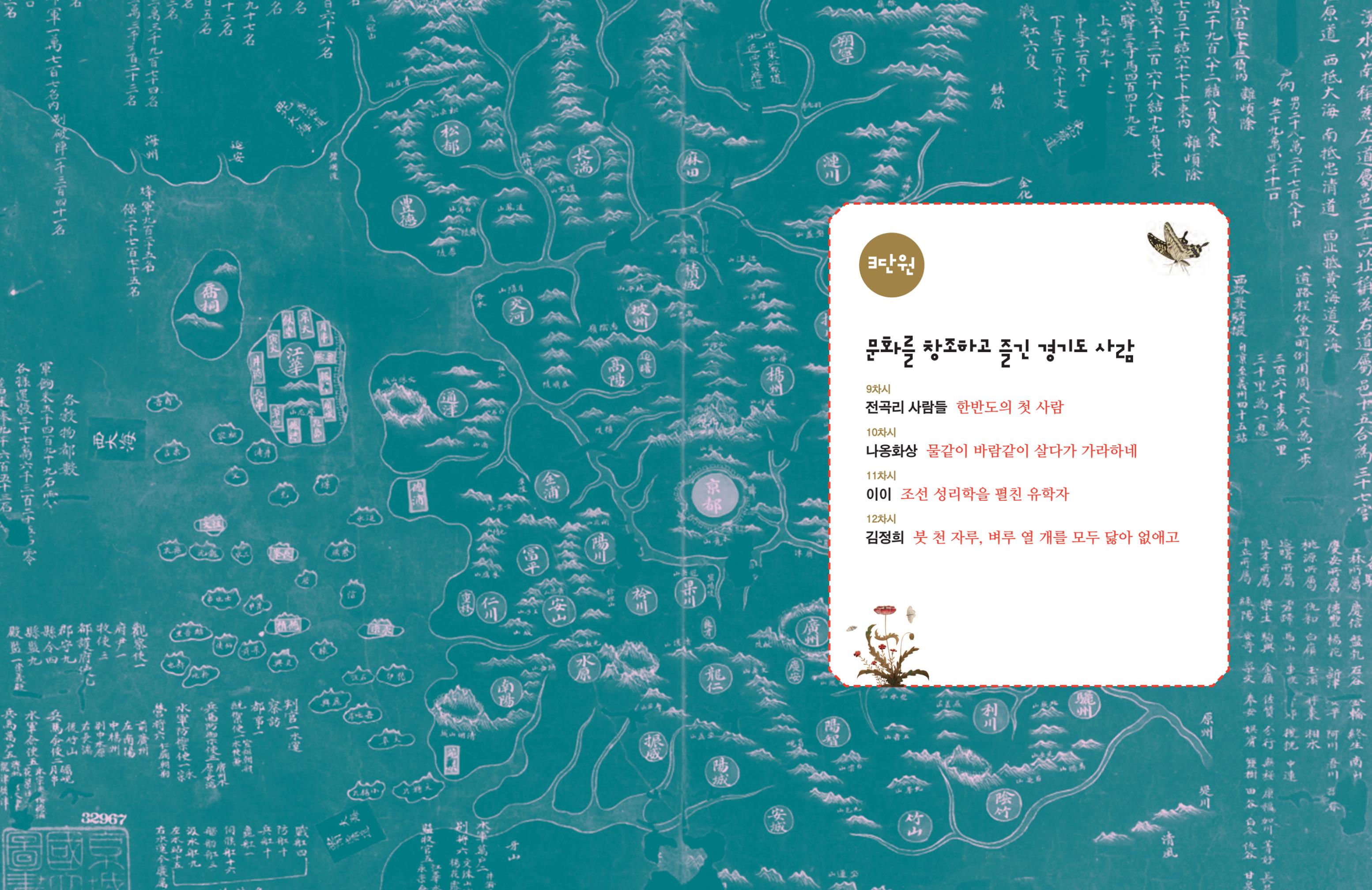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공원에 세워진 스코필드 박사 동상. 그는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외국인의 눈으로 기록한 『끝수 없는 불꽃』을 발행하여 민족대표 33인에 더해 '민족 대표 34인'이라는 칭호까지 받는다.

마을 주민들이 교회 앞에 모이자 돌연 얼굴을 바뀐 총칼로 위협하여 예배당 안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닫아 걸고 바깥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제암리 마을의 집들도 불을 질렀고 숨어있거나 도망 나온 주민까지 살해했습니다. 일본군의 참혹한 살육으로 2명의 여성과 21명의 청년까지 23명의 제암리 주민과 옆 마을인 고주리에 살던 김홍렬을 비롯한 6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학살사건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3·1운동을 지원하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에 의해서 제암리의 학살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4월 17일 학살 소식을 들은 스코필드는 불에 타버린 제암리의 참혹한 모습을 촬영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주민들에게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들은 후 「제암리·수촌리에서의 잔학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캐나다 선교본부에 제출하고, 신문에도 기고하여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부당한 지배에 맞선 정당한 저항에 대해 일제를 비롯한 수많은 부도덕한 권력들이 무자비한 학살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학살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조작하여 법의 심판을 피하고 마침내 역사의 심판마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코필드와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는 결국 드러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권력에 빌붙어 다른 사람들을 짓밟은 사람들이 법의 그물을 피해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보고 “과연 정의란 존재하는 것일까?”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끝까지 기록한다면 역사의 엄정한 법정에서 그들은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

- 9차시 전곡리 사람들 한반도의 첫 사람
- 10차시 나옹화상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 11차시 이이 조선 성리학을 펼친 유학자
- 12차시 김정희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를 모두 닳아 없애고



32967



문화를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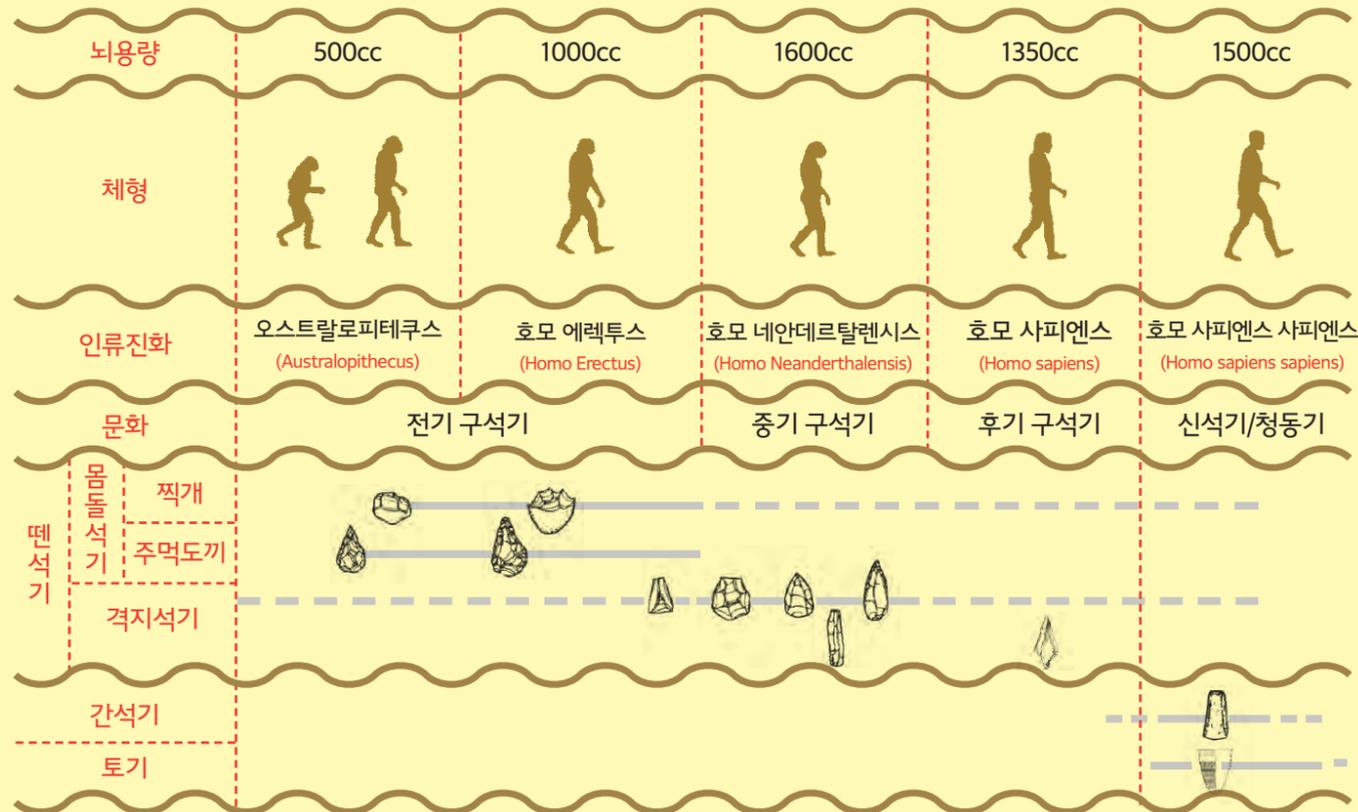


9차시



전곡리 사람들

한반도의 첫 사람



생각 열기

한탄강변 기슭을 거니는
그렉보우인과 여자친구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도구인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세계의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쓰였던 고고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지요.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에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에 담긴 비밀을 풀어보고, 전곡리 유적과 유물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쳐 노력했던 경기도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전곡리 주먹도끼, 어떤 의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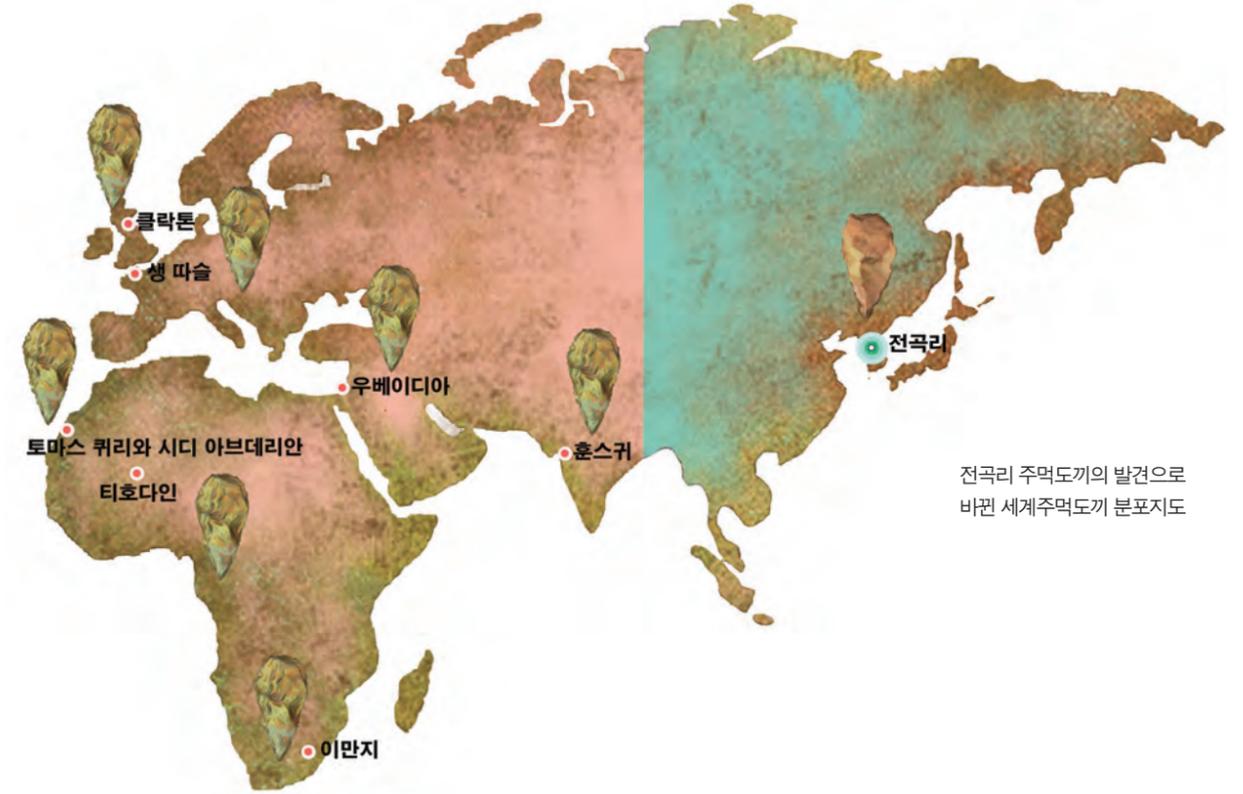
전곡리 선사유적은 1978년 한탄강 주변에서 나들이를 하던 미군 병사가 구석기 시대 펜석기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석기들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프랑스의 생 아술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석기의 특징은 돌을 깨어 도구를 만들 때 앞 뒤 양쪽 면을 모두 다듬어 만든 양면 석기라는 점입니다. 돌의 한쪽 면을 깨뜨려 만든 찌개보다는 훨씬 높은 기술이 필요했고 다용도 칼과 같이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도구였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은 1979년 첫 발굴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발굴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 결과 주먹도끼, 사냥돌, 주먹찌르개, 굽개, 흙날, 찌르개 등 다양한 종류의 펜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동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발견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들은 구석기 문화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주먹도끼가 있는 아프리카·유럽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곳, 없는 동아시아는 뒤떨어진 곳으로 나누려고 했던 모비우스(1948)라는 학자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비우스의 주장은 문화에 우수함과 열등함이 있고, 문화적으로 우수한 인종은 열등한 인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서구 우월주의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문화란,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으로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등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사회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의 발굴 성과는 이후 세계 구석기학계의 연구를 새롭게 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구석기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지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바뀐 세계주먹도끼 분포지도

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국제학술대회와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이 연천 전곡리를 찾아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은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30만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연결 고리입니다.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 30만 년 전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구석기 유적에 대한 발굴과 연구 보존, 전시 교육을 위해 전곡 선사박물관을 2011년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에 가면 1978년과 1979년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최초의 주먹도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00만 년 전 투마이부터 1만 년 전 만달인까지 복원해놓은 선사시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과 전곡선사유적지로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전곡리 선사 유적에 삼을 바친 사람들

초대 발굴단장 삼불 김원룡 선생 (1922~1993)

1993년 제1회 전곡구석기문화제를 시작으로 매년 5월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가 전곡선사유적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25년간 구석기 축제를 이끌어온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 초대 관장과 이한용 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선사유적지에 있는 삼불 김원룡의 흉상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원룡은 고고학자·미술사학자로서 방대한 연구 업적으로 한국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초창기 전곡리 유적 발굴 1979~1986의 조사단장으로 유적을 널리 알렸고, 전곡리 유적 보존을 위해 학자의 의무를 뛰어넘는 노력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1993년 11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 유골을 전곡리에 뿌려달라고 할 정도로 전곡리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1주기 추도식에서는 그의 제자들과 뜻있는 분들이 '삼불 김원룡 선생 추모비'를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세웠습니다.



영원한 반장님, 고 임종태 반장님 (1926~2007)

임종태 반장은 1979년 전곡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전곡리 유적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발굴 인부 반장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작업 반장으로서 유적지 발굴과 평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맡은 직책과는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전곡리 유적을 사랑했으며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적관리인'의 직책을 맡았는데 그 직책은 권한이나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는 전곡리 유적과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후 유적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거나 다투기도 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유적을 지켜왔습니다. 박물관이 세워지기 전 컨테이너로 된 유적관 관리와 전시 해설도 직접 챙기면서 휴일이라도 방문객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와 문을 열어 열성적으로 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곡리 유적 일이라면 내 일처럼 먼저 나서는 임종태 반장의 부지런함과 각별한 애정은 지금 전곡선사박물관과 선사유적지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 초대 관장 배기동, 그의 제자 이한용 관장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삼대에 걸친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원룡 초대 발굴단장의 연구 성과와 유적에 대한 애정은 제자인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이어졌고, 다시 그의 제자인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관장으로 이어집니다.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 초대 관장은 김원룡 초대 발굴단장의 제자로 1979년 전곡리와 인연을 맺은 이후 40년 세월을 전곡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은 배기동 관장의 제자로서 1980년대 중반이후 대학생 이후의 삶 30년을 온전히 전곡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다시 그 제자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학자들의 노력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은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년 전 인류의 흔적을 되짚어보기 위해 찾아오는 훌륭한 교육 문화의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전곡리 주먹도끼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누구도 주먹도끼를 사용하는 선사시대 사람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30만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발굴된 유적을 조사하고,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과 그에 깃든 인간 흔적을 탐구하여 당시의 생활 모습을 복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고고학자가 되어 유적과 유물을 탐구해서 당시 생활 모습을 추론해봅시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는 동물 뼈와 함께 주먹도끼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십만 년 전 몇 명의 사람들이 굴주림을 참아가며 며칠 동안 동물을 추적하여 어렵게 사냥을 했어요.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맛있는 고기를 먹고 가죽은 추위를 막는 옷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주먹도끼의 날카로운 양날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나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함께 행복한 저녁



을 누렸을 겁니다.

두 번째, 주먹도끼의 모양을 잘 살펴봅시다. 손으로 쥐는 부분과 양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쥐고 손도끼처럼 나무를 베거나 나뭇가지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땅을 쉽게 팔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손으로 쥐고 힘차게 땅을 파면 호미나 모종삽 못지않게 땅이 잘 파지겠죠?

세 번째, 주먹도끼의 모습은 사용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용하는 도구의 기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구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알아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의 모양새를 봐도 알 수 있지요. 주먹도끼도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기능만을 따진다면 굳이 아주 세세하게 다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성들여 세세하게 다듬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좀 더 멋진 선물을 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30만 년 전 호모에렉투스들도 잘 다듬은 주먹도끼로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네 번째, 주먹도끼를 만든 사람은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리고서 돌을 깨뜨렸습니다. 단순히 돌을 내려치면 한쪽 면만 깨어집니다. 주먹도끼는 한쪽 면만 다듬은 것이 아니라 반대쪽 면도 함께 다듬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내리치면 저기가 떨어져나가겠지?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요렇게 다듬어야지!’ 하는 식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 머릿속의 설계도를 현실의 도구로 형상화하는 능력이 구석기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돌을 깨는 바로 그 순간 자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구를 스스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인류가 돌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우주 여행도 없었을 겁니다. 주먹도끼를 뚫어져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30만 년 전 전곡리에 살던 경기도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가 들려주는 옛 경기도 사람, 한반도 첫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생각 나누기

나는 고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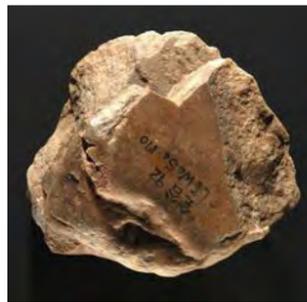
▲ 아래 두 유물은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와 찌개입니다. 두 유물을 잘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여 써보세요.

주먹도끼 앞면

주먹도끼 뒷면



찌개 앞면



찌개 뒷면



공통점

차이점

제작 방법

제작 방법

쓰임새

쓰임새

구석기 최첨단 과학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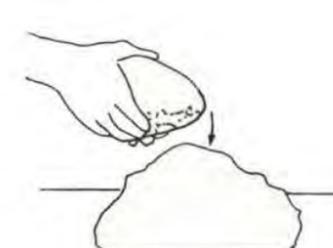
생각 더하기

▲ 다음 석기 제작 방법을 참고하여 주먹도끼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써보세요.

< 석기 제작 방법 >



① 직접타격법



② 모루떼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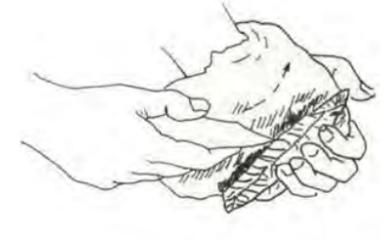
③ 양극타격법



④ 뿔망치직접타격법



⑤ 간접타격법



⑥ 가압법

『신편 한국사』_국사편찬위원회



1단계

2단계

3단계

문화의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



10차시



나옹 화상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총선왕
만권당설치

공민왕 즉위

홍건적 침입

문익점,
목화씨 가져옴

우왕 즉위

1314년

1351년

1359년

1363년

1374년

1320년
경북 영덕
출생

1347년
원나라로 유학

1358년
지공의 가르침
으로 귀국

1374년
회암사 중창

1376년
여주 신륵사
열반

1321년

1337년

1347년

1368년

1389년

단테 『신곡』 완성

영국 프랑스
백년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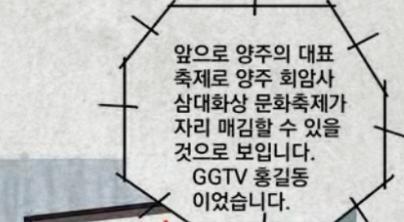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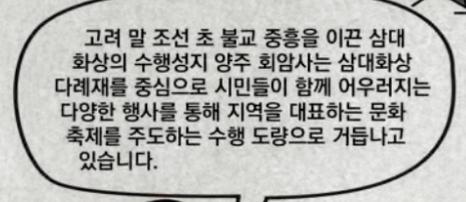
유럽 흑사병 발병

주원장 명건국

오스만제국
발칸 장악

세계에는 어떤 일이?

생각 열기



양주시의 회암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의 흥망이 함께했던 절이기도 합니다. 회암사가 전국 사찰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지공, 나옹, 무학 세분의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고려 후기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불교계 내에서 불교를 개혁하고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스님이 바로 나옹화상이십니다. 오늘은 고려 말 지공의 제자이면서 무학의 스승이었던 나옹화상의 삶을 통해 고려 말 불교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더 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다



고려 말 1339년 20세 청년 원혜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 삶과 죽음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에 답을 구하다 공덕산 묘적암에 있는 요연선사를 찾아가 출가하였습니다. 이름은 혜근, 법호는 나옹을 받아 깨달음을 구하고자 열심히 수련하였습니다. 24세에 양주 회암사로 옮겨와 4년간의 수도 끝에 작은 깨달음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원에 기대어 득세를 하고 호의호식하는 세력들과 고려의 자주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겨루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궁핍하고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불교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나옹은 더 큰 깨달음과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원에서 나옹은 평생 스승인 지공을 만납니다. 인도에서 온 지공은 큰 스님으로 인도와 원, 고려에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지공은 고려에서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고려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옹은 연경¹ 법원사로 지공을 찾아갔습니다.

¹ 지금의 북경.

“어디서 왔는가?”
“고려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신통으로 왔습니다.”
“나타내보라.”



지공의 시
앞세 푸른 매화 한 그루에 한 송이 꽃 피누나
이 세상 어디에도 그와 비길 건 없네
과거사도 묻지 않았거늘 장황히 미래사를 말하네
향기 땅에 이르니 우리들의 주재자가 기쁨 넘치네

나옹의 시
해마다 매화는 눈 속에 피었거늘
벌 나비 제 바빠 새로 핀 줄 모르더라
오늘 하나의 꽃 이 가지 끝에 가득하니
은 세상 다 같이 봄이네

나옹은 곧장 지공에게 다가가 합장하고 섰습니다. 견고 손을 모으는 모든 일상의 행위 자체가 청정한 불성의 작용이며, 가장 놀라운 신통력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후세 사람들을 위해 왔습니다.”

지공은 나옹이 큰 그릇이 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혼란한 고려 불교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음도 알았습니다. 지공은 나옹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대중을 이끄는 스님으로 법원사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지공과 나옹이 주고받은 시를 살펴봅시다.

방장실에 앉아 다과를 드니
이것이 변함없는 좋은 약이로다
동서를 바라보면 그러하지 않은 데가 없으니
눈 밝은 법왕에게 천검을 준다.

지공의 시에 나옹이 화답하였습니다.

스님의 차를 받들어 마시고 일어나서
세 번 예배합니다.



지공(앞쪽), 나옹(뒤쪽) _여주 신흥사 삼화상 진영 중

다만 이 참다운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옹은 불교의 도를 구하기 위해 11년을 원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원에서도 나옹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고 고려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나옹은 귀국하여 회암사에서 고려의 불교를 드높이려는 스승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의 나이 39세, 1358년에 귀국하여 전국을 다니며 설법을 합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나옹 고려의 불교를 일으키다

나옹은 10여 년간의 오랜 수학 기간으로 보다 많이 배우고 익혀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을 펼칩니다. 나옹의 가르침은 통일신라 이후의 9산 선문이나 지눌의 수선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 원이 망하고 새로 명이 건국되는 혼란한 국제 상황과 불교계가 부패와 타락으로 사회적으로 큰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전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옹의 가르침은 오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본분본질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화두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화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부처와 스승의 설법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속이는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르침에 있어 일방적인 주입식 설법이 아니라 대중을 향해서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 즉, 화두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어찌하여 개울을 이루며, 밥은 어찌하여 쌀로 짓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스스로 생각하여 터득케 하는 기법입니다. 선이란 이런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펼쳐나갔습니다. 불교계를 새롭게 바꾸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높여 나갔습니다. 그의 문하에는 조선 초에 크게 활동했던 무학대사 등 100여 명의 선승이 있어 그 가르침을 계승하였으며, 이후 한국 불교 선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나옹은 전국을 다니며 설법하다가 스승의 뜻대로 회암사로 돌아옵니다. 나옹은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회암사를 크게 다시 짓습니다. 회암사는 지공이 '삼산 양수지기'²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곳에 사찰을 일으키면 국운이 도래하고 불법이 새로이 크게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곳입니다. 이것은 신라시대에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삼한이 통일된다고 주장하여 국론을 모아 삼국통일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던 자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회암사의 중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나옹이 51세가 되었을 때 1370년 1월 지공의 뼈와 사리가 회암사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이때 지공의 가사와 사세장³을 나옹이 받게 되자 공민왕은 지공의 직계 제자가 나옹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적극 후원을 합니다. 나옹은 주로 회암사에 머물면서 왕명으로 지공의 승탑과 비를 세우고, 1376년^{우왕 2년} 4월 15일에 이르러서는 낙성회를 베푸는 등 지공 관련 추모 사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중창된 회암사 건물들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전국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보는 이마다 이 같은 사원은 중국에도 흔치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제 정세의 커다란 변화에서 오는 위기감과 공민왕의 갑작스런 죽음 등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이룩한 일기기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² 세 개의 산이 모이고 두 개의 강 줄기가 흐르는 땅이라는 뜻으로 스승인 지공이 나옹에게 회암사를 가리켜 한 말.

³ 자신의 큰 제자에게 적통의 계승을 상징하여 전해주는 지팡이.



이제 이 제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대는 그대 나라로 돌아가 산이 셋 모여 있고 강줄기가 돌 흘러가는 지역에서 불법을 펴라. 그러면 불법은 자연 흥할 것이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부처가 된 나옹

회암사가 새로이 크게 지어지자 연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진사대부들로 구성된 어사대의 신하들은 회암사가 개경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밤낮으로 오가는 바람에 생업을 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왕의 뜻으로 나옹을 멀리 밀양의 영원사로 옮기도록 조치합니다.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 회암사에서 쫓겨난 나옹은 길을 옮기던 도중에 병을 얻었습니다. 양주 회암사에서 출발하여 한강에 이르자 병세가 심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 남한강의 여주 신륵사에 도착합니다. 나옹은 자신의 병세가 심하니 잠시 쉬면서 병을 살피고 가자고 하여 신륵사에 머물렀습니다. 호송관이 출발하기를 독촉하자 나옹은 “그건 어렵지 않으나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오”라는 말을 남기고 그날 아침에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회암사를 떠나며 대중들에게 ‘여흥에서 그칠 것’이라고 했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나옹이 입적할 때 사람들은 오색구름이 산꼭대기를 덮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옹이 타던 백마는 입적하기 사흘 전부터 풀을 먹지 않고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는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옹의 입적에 관한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자 나옹을 의심했던 자들은 의심이 풀리고, 믿었던 이들은 더욱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행여 남에게 뒤질세라 나옹을 믿고 받들어 모시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회암사에는 지공, 나옹, 무학 3화상의 승탑과 비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1372년 9월 왕명으로 나옹이 주관하여 지공의 승탑과 비를 세웠습니다. 이후 1376년 5월 15일 신륵사에서 나옹이 입적하자 8월에 회암사에 승탑을 세웠습니다. 무학이 1393년 9월에 지공과 나옹의 탑명을 세웠고, 1405년 무학이 입적한 뒤 1407년에 왕이 무학의 유골을 회암사의 탑에 두고, 1410년에 시호를 내리고 탑명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회암사에는 세 스님의 마음, 나라와 불법을 다시 일으키고자 염원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옹의 승탑은 회암사 외에도 여러 사찰에 건립됩니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나누어 탑을 세웠듯이 나옹 화상의 사리를 나누어 여러 사찰에서 나옹화상을



세 승려의 승탑으로 표현한 문화제 포스터

기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스님이 아니라 부처로 추앙 받은 것이지요. 나옹 화상은 양주 회암사, 여주 신륵사, 원주 영전사, 밀양 영원사에 사리를 나누어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나옹이 입적한 여주 신륵사에는 나옹의 입적 3년 후인 1379년 보제존자석종과 보제존자석종비가 세워집니다. 이 석종은 이후 조선시대의 승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석종형의 시원이 됩니다.

원주 영전사에는 1388년 보제존자 사리탑 2기가 세워집니다. 이 승탑은 승려들의 무덤인 승탑의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부처의 무덤인 불탑 형식을 갖추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끄니다. 더불어 동, 서 쌍탑을 세웠습니다. 쌍탑은 석가여래가 부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 달리 말하면 나옹화상이 새로운 부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이 탑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실에 옮겨져 있습니다. 탑을 옮길 때 탑 안에서 죽은 사람에 관해 새긴 지석이 발견되어 보제존자사리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주 신륵사에서 열반하는 장면. 나옹이 입적할 때 사람들은 오색 구름이 산꼭대기를 덮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옹이 타던 백마는 입적하기 사흘 전부터 풀을 먹지 않고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는 슬피 울었다고 함.



생각 나누기

청산은 나를 보고



▲ 나옹화상의 시를 보고 내 마음을 담아 시를 써봅시다.

청산은 나를 보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靑山兮要我

懶翁禪師

靑山兮要我以無語 (청산혜요아이무어)
蒼空兮要我以無垢 (창공혜요아이무구)
聊無愛而無憎兮 (료무애이무증혜)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

靑山兮要我以無語 (청산혜요아이무어)
蒼空兮要我以無垢 (창공혜요아이무구)
聊無怒而無惜兮 (료무노이무석혜)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

_____ 나를 보고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고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네
_____ 벗어 놓고 _____ 벗어놓고
_____ 바람같이 _____ 가라하네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고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네
_____ 벗어 놓고 _____ 벗어놓고
_____ 바람같이 _____ 가라하네

_____ 나를 보고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고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네
_____ 벗어 놓고 _____ 벗어놓고
_____ 바람같이 _____ 가라하네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고
_____ 나를 보고 _____ 살라하네
_____ 벗어 놓고 _____ 벗어놓고
_____ 바람같이 _____ 가라하네

승탑의 변화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 승탑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뒤부터는 화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스님의 무덤인 승탑이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말 선종이 크게 일어나면서 스님들의 지위가 높아져 불탑처럼 스님의 승탑 역시 많이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승탑은 모양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팔각원당형 승탑입니다. 팔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등의 기반부는 물론이고 그 위에 놓이는 탑신 괴임대,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까지 모두 8각으로 조성되어 층층이 쌓인 것으로 전체적인 평면이 8각 형태를 이루고 있는 승탑을 통틀어 팔각원당형 승탑이라 일컬으며 우리나라에서 건립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 된 승탑인 염거화상탑이 그 시원이며, 고려시대 가장 많이 조성된 양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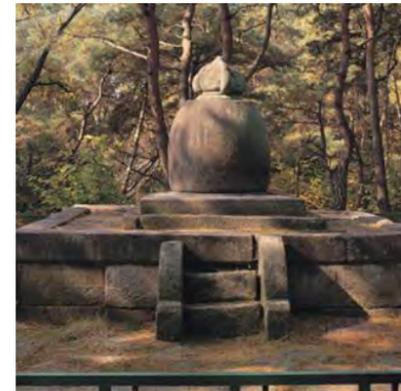
두 번째, 석종형 승탑입니다. 승탑의 형태가 종의 모습과 비슷한 데서 생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석종형 승탑의 원류는 인도의 스투파(복발형 탑파)에 있으며 주로 고려 말 이후 조선왕조 전 시대를 통하여 가장 많이 세워졌습니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초기에도 건립된 예가 있어 그 시원은 통일신라 말 9세기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울산 태화사지의 12지상승탑(十二支像淨屬)가 처음으로 나타난 석종형 승탑입니다.

세 번째, 특수형 혹은 변형 양식의 승탑입니다. 그 모양을 살펴보면 기반부에서 하대와 중대석이 8각을 이루나 탑신석은 공처럼 원구형인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양은 방형의 평면을 보이는 불탑과 같은 모양을 가진 승탑입니다.

▲ 나옹화상의 승탑은 다른 스님과 달리 많이 있어요. 거기다 다양한 양식으로 조성되었답니다. 살아 있는 부처님이란 말씀을 들던 나옹 화상의 명성만큼 다양한 승탑을 세웠지요. 각각의 승탑은 어떤 양식인지 말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세운 그 까닭을 추론하여 보세요.



회암사 나옹선사 승탑



여주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

양식

그렇게 세운 까닭

문화의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

11차시



이이

조선 성리학을 펼친 유학자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삼포왜란

소수서원 사액

을사사화

기축옥사

임진왜란 발발

(정여립모반사건)

1510년

1543년

1545년

1589년

1592년

1536년

강릉 오죽헌에서 출생



1555년

자경문을 짓고 공부에 전념



1564년

첫 벼슬길

1575-77년

『성학집요』 『격몽요결』 『해주향약』



1584년

한양 대사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남

1517년

유럽 종교개혁

1532년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 영국 함대에 패배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통일

160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막부 시대

세계에는 어떤 일이?

생각 열기

나의 또 다른 이름, 호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름이 여럿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명', 본명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를 때 쓰는 '호', 성인식인 관례 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집안이나 주위 어른이 지어주는 '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복잡하단가요?

각각 쓰임새가 다르니 잘 생각해 보세요. 또래나 윗사람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의미에서 주로 '호'를 불렀습니다. 윗 사람에게 자신을 부를 때는 본명으로 칭하였지만, 동년배 이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보통 '자'를 말했답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들이나 제자를 부를 때는 본명을 썼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별명을 부르는 것도 바로 이 호에서 유래된 것이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고향마을인 울곡을 호로 사용한 '울곡' 이이 선생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자경문'을 써서 평생 공부의 뜻을 세우다



율곡 이이는 1536년 12월 26일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 북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곳인 오죽헌이 바로 율곡이 태어나 6살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이지요.

율곡은 아버지를 따라 고향 마을인 경기도 파주 율곡마을에 와서 살게 됩니다. 율곡이 어릴 때 화석정이라는 정자에 올라 썼던 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과연 몇 살 때 썼을까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나이라고 해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가에 있는 화석정에 가면 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율곡이 13살이 되어 처음으로 과거를 봅니다. 과거 시험은 오늘날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합격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 30살이 넘어야 과거에 합격하였고, 평생 공부했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벼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율곡 선생은 13살에 처음 과거를 보면서 수석 합격인 장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율곡의 실력에 깜짝 놀라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벼슬길에 올라 승승장구 했냐고요? 아니요. 율곡에게도 시련이 닥치지요. 사실 어린 율곡이 과거 시험을 보았던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율곡처럼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경험 많이 있겠죠?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던 율곡에게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일은 세상이

화석정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뜻이 끝이 없도다 / 먼 물
줄기는 하늘에 달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다 / 산
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놓고 강
은 만 리의 바람을 머금었다 / 변
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소
리가 저물어 가는 구름 속에서 끊
어지네



율곡 이이 선생이 시를 썼던 화석정.

무너지는 것보다 같았을 거예요. 16살의 율곡은 어머니의 묘소에서 삼년상을 치르며 삶과 죽음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였답니다. 삼년상을 마치고 18살이 되어 성인식인 관례를 치룹니다. 이때 율곡은 '숙헌叔獻'이라는 자¹호¹를 받습니다. '어진 젊은이'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죽음과 방황, 성인식 등은 소년 율곡이 청년이 되는 과정이었지요.

19살 청년 율곡은 금강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뒷날 율곡을 질시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율곡을 공격할 때 늘 빌미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에 입문했던 일이지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율곡은 성리학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답니다. 그의 철학에 독창성과 통합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젊을 때의 방황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갈등과 방황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많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과 방황은 결코 해롭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마음을 다해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성큼 자라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율곡이 그랬던 것처럼요.

금강산에서 공부를 하다 깨달음을 구한 율곡은 20세에 외할머니가 있는 오죽헌 외가로 갑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자 스스로 경계하는 글 『자경문』 11개 조항을 지어 평생 좌우 명으로 삼았습니다.

학업에 정진하던 율곡은 이듬해 21살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뽑히면서 다시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¹ 성인식인 관례 때 부모님이나 스승이 내려주는 어린 이름.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평생의 벗이자 스승,
퇴계 선생님과 그의 만남

율곡은 22살이 되었을 때 경상도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과 혼례를 치릅니다. 부인은 16살의 신부였습니다. 혼인 후 율곡은 성주에 있는 처가에서 그해 겨울을 보냅니다. 이듬해 봄 강릉 외가로 가던 도중 율곡은 예안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을 방문합니다. 예안은 지금 경북 안동시의 도산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23살 조선의 천재 율곡과 당시 조선의 대학자로 이름난 퇴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랍니다. 58살의 대학자와 23살의 젊은 학자의 만남은 짧았지만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35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 넘은 대학자들의 극적인 만남이자, 중국의 성리학을 조선의 학문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두 성인聖人의 만남이었지요.

율곡은 퇴계에게 인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지어 바쳤습니다.



시냇물은 수사에서 갈라져서 흐르고
봉우리는 무이산처럼 드높습니다.
살림이라곤 경서가 천 권이고
몸 둘 집은 몇 칸뿐이지만
가슴에 품으신 뜻은 환히 갠 하늘의 달과 같고
웃으며 하시는 이야기는 미친 물결조차 잠들게 하십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도를 듣고자 함이니
반나절을 헛되이 보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에 퇴계도 화답하며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병든 나는 문을 닫고 있어 봄이 온 줄을 몰랐는데
그대가 찾아와 마음을 상쾌하게 열어주네
선비의 높은 명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니
몸가짐도 변변히 못해 온 내가 부끄럽구려
좋은 곡식에 쪽정이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새로 닦은 거울에 티끌도 묻지 않게 하오
정에 겨워 과분하게 표현한 시어는 깎아버리고
힘써 공부하여 날로 더욱 친해보세

시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두 학자는 이후 사흘간 퇴계의 집에서 머물며 학문과 인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퇴계의 인정과 격려는 이후 율곡에게 큰 힘이 되었지요. 12년 후 퇴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율곡과 퇴계는 학문의 벗으로 지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공부에 대해 토론을 할 때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었지요. 이후 퇴계와 율곡은 학문에 대해서 벼슬살이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갔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율곡은 퇴계가 돌아가셨을 때 스승의 예를 갖추어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율곡과 퇴계 두 분은 평생의 벗이면서도 한편으로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평생 스승은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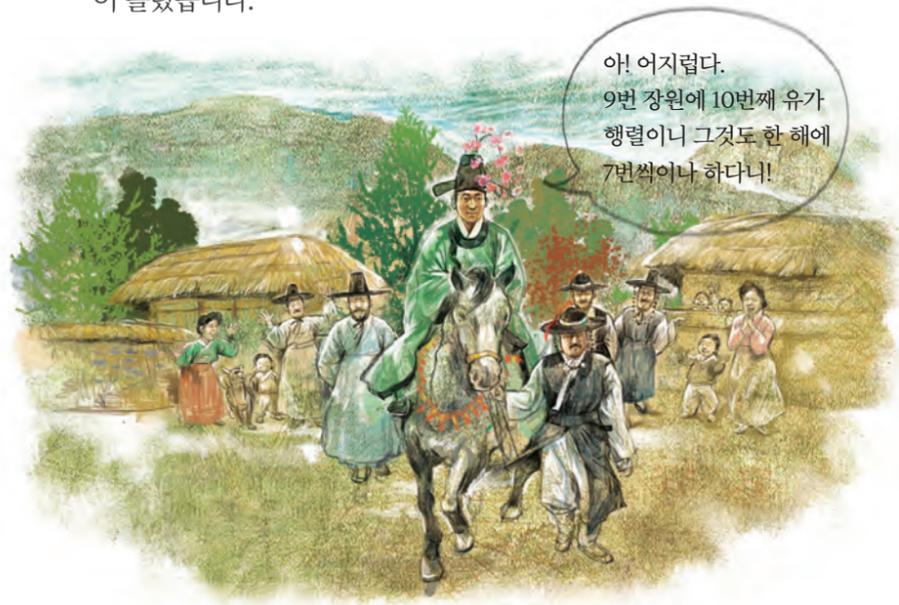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뜻을 펼친 율곡

² 부정기적으로는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치르는 특별시가 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관리는 크게 문관과 무관, 기술관으로 나뉘었습니다. 흔히 문반과 무반 둘을 일컬어 양반이라고 합니다. 문관을 뽑는 과거제도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등용하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었습니다.²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것인데 초시1차, 복시2차를 통과 즉, 급제하면 생원과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균관 유생과 더불어 대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대과는 초시1차와 복시2차, 그리고 임금 앞에서 치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를 통과하면 벼슬길에 나아갔습니다.

율곡은 29세에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 모두 장원 즉 1등으로 합격하여 ‘삼장 장원’으로 불렸습니다. 한편, 과거를 치르던 그해 생원시에 장원하고, 이어 진사시에 고등으로 합격하였으며 문과에도 모두 장원을 하였으니 그 전에 장원을 했던 것을 모두 합하여 9번이었으므로 당시 ‘구장 장원, 구도 장원’이라 일컬었습니다.

29살에 관리로 등용된 율곡은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나랏일을 돌보았습니다. 어린 선조가 왕이 되자 율곡은 임금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며 어진 임금이 되도록 학문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중요 관직을 거치면서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글을 지어 올렸습니다.



구도 장원공 율곡의 과거 시험.

시험종류		시험회수	시행 년수	해당 율곡의 나이
구분	세분			
소과	생원과	초시	3년마다 한 번	29세 장원
		복시		29세 장원
	진사과	초시		13세 장원, 29세 장원
		복시		21세 장원, 29세 급제
대과		초시	3년마다 한 번	29세 장원
		복시		29세 장원
		전시		29세 장원
특별시	별시	초시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23세 장원
		복시		

그중 39살에 우부승지³에 올랐을 때 임금께 지어 올린 『만언봉사』의 내용을 볼까요? 첫째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 알맞게 법을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 사회의 7가지 폐단을 없애고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에 힘쓰자는 것이고, 셋째는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율곡의 상소는 현실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율곡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금을 위해 『성학집요』라는 책을 지어 바칩니다. 『성학집요』는 성인들의 말씀을 가려 뽑아 만든 책이라는 뜻으로 유교적 정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을 임금에게 조언한 책입니다. 유교 경전 구절과 자신의 생각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도 선조가 변화가 없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하자 율곡은 은퇴를 결심하고 파주로 돌아갑니다. 나아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해주로 이주합니다. 해주에서 율곡은 제자를 기르는 교육활동에 전념합니다. 『격몽요결』과 『학교모범』을 책으로 펴내고, 『해주향약』과 『해주일향약속』을 만들어 성리학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배움을 구하러 율곡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은병정사’를 세워 본격적으로 학문을 펼칩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과 교육, 사회 활동에 전념하던 율곡은 선조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어 45살에 다시 조정엔 나아갑니다.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폐단을 개혁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율곡의 주장이 다른 관리로부터 공격을 받아 다시 고향과 해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조판서로 부름을 받았으나 이때 율곡은 과로로 인한 병이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율곡의 나이 49세 되던 해 1월 16일 새벽 숨을 거둡니다.

³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바로 아래 자리와 같은 주요 관직.

생각 나누기

스스로를 깨우치는 글, 자경문



▲ 율곡이 불교에 귀의했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와 유학자로서 자기 수행의 거울을 삼고자 지은 '자경문'의 내용입니다.

- 1. 입지(立志) 뜻을 크게 가지고 성인을 본받되,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2. 과언(寡言) 말을 적게 하라.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말을 줄여야 한다.
- 3. 정심(定心)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잡념과 집착을 끊고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 4. 근독(謹獨)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하면 자연히 일체의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5. 독서(讀書)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뒤에 글을 읽는다. 글을 읽는 이유는 의리를 살펴 일을 할 때에 쓰기 위한 것이다.
- 6. 소제욕심(掃除慾心)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라.
- 7. 진성(盡誠) 모든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해야 한다.
- 8. 정의지심(正義之心) 천하를 언더라도 불의로 얻어서는 안 된다.
- 9. 감화(感化)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돌이켜 깊이 반성하여 그 사람을 감화시켜야 한다.
- 10. 수면(睡眠) 마음을 항상 깨어 있게 하고 바르게 자야 한다.
- 11. 용공지효(用功之效) 공부는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서두르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아야 한다.

활동 1. '나의 자경문'을 짓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토론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 1.
- 2.
- 3.

'나의 호'를 짓는다면 나는 어떤 호를 지을 것인지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의 호	고향, 지명	
	꿈, 이상	
	좌우명, 의지	

돈에 새겨진 비밀

생각 더하기



▲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돈에는 그 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새겨 넣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지폐에 그려진 분이 누군지 관심을 갖기보다는 동그라미 개수에 더 관심이 많았겠지만 오늘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000원권에 그려진 분은 누굴까요? 퇴계 이항입니다. 5,000원권에 그려진 분은 누굴까요? 율곡 이지요. 제일 큰 돈인 5만 권에는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 지폐에는 인물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과 관련된 건물, 식물, 예술 작품 등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아래에 써보세요.

1000원	5000원	50000원

▲ 여러분이 화폐를 만든다면 어떤 분을 화폐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나요? 한번 만들어보아요.

<내가 만든 화폐>

10000

15000

문화의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 4

12차시



김정희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를
모두 닳아 없애고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대전통편
완성

홍경래의 난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 순교

이양선, 경상,
항해, 강원5도 출현

최제우
동학 창시

1785년

1811년

1846년

1848년

1860년

1786년
출생

1810년
북경에서 완원·
옹방강과 교유

1844년
제주도 유배 중
<세한도>를
그려줌

1852년
북청 유배에서
풀려나 과천 과지
초당에서 지냄

1856년
과천 과지초당
에서 세상을
떠남



세계에는 어떤 일이?

프랑스혁명

영국, 세계 최초
철도 개통

청,
아편전쟁

마르크스
엔겔스 '공산당
선언' 발표

일본,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1789년

1825년

1840년

1848년

1858년

생각 열기

추사 관련 유물, '인수기증 협정식'



2006년 5월 18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한국대사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후지츠카 치카시 교수가 평생 연구, 수집했던 추사 관련 유물을 아들인 후지츠카 아키나오 선생이 과천시에 기증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감사의 뜻으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한 행사입니다. 훈장은 그날 저녁 자택에서 병상에 누워 있는 후지츠카 아키나오 선생에게 전달되었답니다. 95세의 노학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퍼져나갔어요.

과천시 추사박물관의 추사 관련 유물은 2대에 걸친 일본인 부자의 노력과 함께 과천문화원 추사연구회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공부하며 보존하고자 노력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평생의 스승을 만나 옛 글씨를 찾아 나서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1786년정조10년 6월 3일 경주 김씨 명문가에서 김노경과 기계 유씨 사이에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추사의 집안은 증조할아버지인 김한신이 영조의 사위인 까닭에 왕실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추사는 8살 무렵 큰아버지인 김노영의 양자가 됩니다. 큰아버지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조선시대에는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 가까운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추사는 실학자인 박제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박제가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중국의 북경을 세 번이나 다녀온 학자로 개혁사상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 번의 경험을 가진 학자가 풀어내는 중국의 앞선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추사에게 호기심과 모험심을 키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추사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큰아버지 김노경이 북경의 사절단으로 갈



<추사전별도> 이한복 임모. _추사박물관
추사를 위해 청나라의 문인들이 송별 모임을 열었고, 그때의 모임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추사에게 선물한 것. 요즘으로 치면 기념사진과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집 안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조선 옷을 입은 사람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다.

때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24살 청년 추사는 1809년 청나라로 출발하여 1810년 되돌아 올 때까지 5개월에 걸친 대장정에 오릅니다. 그중에 북경에서는 40여 일을 머물렀습니다.

청나라에 도착한 추사는 당시 청나라의 대학자였던 78세의 옹방강, 또 다른 학자 47세의 완원을 만납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글로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추사는 이 학자들을 통해 금석학과 고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외에도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추사는 많은 책과 글씨, 탁본 등을 선물로 받습니다. 추사는 완원 선생을 존경하는 의미로 완당이라는 호를 즐겨 썼습니다.

청에서 돌아온 추사는 청나라의 학자들과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추사는 유명한 서예가들의 글씨를 본받으며 꾸준히 글씨체를 연마해나갔습니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추사 덕분에 더욱 많은 조선의 학자들이 청나라의 학자들과 학문을 교류할 수 있게 되지요.

추사는 금석고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북한산 진흥왕순수비를 비롯한 다양한 비문을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1816년 추사는 친구 김경연과 북한산 비봉에 올라 비석을 조사합니다. 비봉 꼭대기에 세워진 진흥왕순수비는 그 이전까지는 무학대사의 비석으로 알려졌었는데 추사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신라 진흥왕의 비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듬해 또 다른 친구 조인영과 함께 두 번째 답사를 와서 자신이 이 비석을 조사한 내용을 비석 옆면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벼루 10개, 붓 1,000자루 써버리며
(磨穿十研 秃盡千毫)書簡, 1856년,
개인 소장(복제) _문화재청



께 황초령에서 발견된 진흥왕순수비를 진흥리로 옮기고 비각을 세워 보호하였습니
다. 그때 윤정현의 부탁으로 '진흥복수고경眞興北狩古竟'이라는 현판을 썼는데 '진흥왕
이 북쪽을 순시한 옛 영토'라는 뜻입니다.

1852년 북청 유배가 끝나고 나서 추사는 아버지께서 과천에 마련해 놓았던 과
지초당으로 옮겨갑니다. 추사는 이전에도 과천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1837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과지초당 근처 청계산의 옥녀봉에 부친을 모시고
삼년상을 치렀답니다. 그 뒤에도 추사는 자주 과지초당을 찾았습니다. 추사는 생애
마지막 4년 동안을 과지초당에서 지냅니다. 이 시기는 평생을 추구했던 학문과 예술
을 절정을 이룬 시기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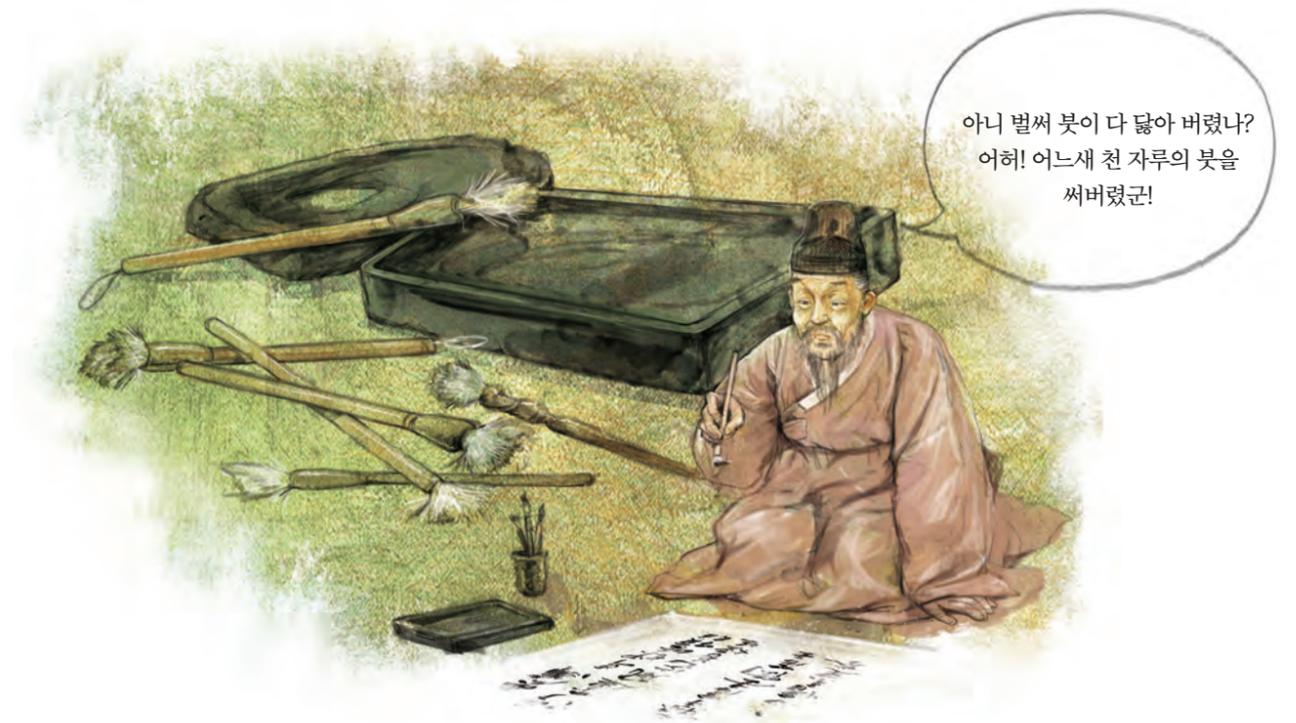
추사는 일생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글씨를 연마하였습니다. 새로운 것
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자신이 이루어왔던 성과를 한 단계 훌쩍 뛰어넘기 위한 노
력을 한 것이죠. 이를 통해 '추사체'라는 자신만의 경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야기할 때 천재성을 많이 이야기하죠. 재주가 타
고났다고도 합니다. 물론 타고난 재주가 있어야만 하겠지만 추사의 빛나는 점은 천
재성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것입
니다.

추사가 과천에 머물고 있을 때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
습니다. 편지에서 추사는 자신의 글씨가 보잘 것 없다고 겸손한 자세로 말하고는 70
년 동안 벼루 10개를 갈아 구멍을 내고 1,000자루의 붓을 닳게 했다고 말합니다. 보
통 사람들은 평생 벼루 한 개도 구멍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1,000자루의 붓을
만져나 볼 수 있을까요? 추사체는 바로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글씨였습니다.

추사는 스님들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추사가 기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3일



봉은사 <판전> _한국관광공사



전에 봉은사의 경관전 현판 글씨인 판전을 썼습니다. 이 건물은 1856년 봉은사(서울
시 강남구 소재)에서 영기라는 스님이 화엄경 판목을 조성하고 이를 봉안하기 위해
지었어요. 그 때 스님의 부탁으로 추사가 현판을 썼답니다. 판전 현판 왼쪽에 보면
'七十一果病中作', 즉 "일흔 한 살의 과천 사람이 병중에 쓰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추사의 생전 마지막 작품입니다.

추사가 머물렀던 과지초당이 전해져 오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집은 허물어지
고 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 가면 과천시에서 과지초당 집을 재현해놓았습
니다. 그리고 추사의 학문과 예술을 연구하고 유물을 보존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추사
를 널리 알리기 위한 추사박물관도 건립하였답니다. 여러분, 추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추사박물관에 한번 가보실래요?

생각 나누기

추사를 사랑한 사람들



추사의 <세한도>는 추사의 제자 이상적이 스승으로부터 받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작품은 제자였던 김병선이 소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김준학이 물려받았다가 <세한도>는 민영휘가 구입합니다. 그의 아들 민규식이 '경성 민(閔)씨 소장품 경매전'에 내놓습니다. 경매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후지츠카 치카시 경성제대 교수가 낙찰을 받아 소장하게 됩니다.

후지츠카 교수가 1944년 여름 일본으로 돌아가자, <세한도>를 소장하고자 애썼던 소전 손재형은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후지츠카의 집을 찾아갑니다. 당시는 미군의 도쿄 공습이 한창인 때였고 후지쓰카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소전은 후지츠카를 만나 '세한도'를 넘겨달라고 졸라댈지만 후지츠카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소전은 뜻을 버리지 않고 무려 두 달간 매일 문안인사를 드리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2월 어느 날, 후지츠카는 만아들 아키나오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소전에게 넘겨주라고 유언하고는, 소전에게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한도>를 양도해 줄 것만을 묵묵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후지츠카는 소전이야말로 <세한도>를 간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소전이 어떻게 사례해야 할지를 묻자 후지츠카는 선비가 아끼던 것을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잘 보존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전은 <세한도>를 갖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소전이 <세한도>를 가지고 귀국한 뒤 석 달쯤 지난 1945년 3월10일, 후지츠카의 연구실이 공습을 받아 많은 책과 서예, 그림 자료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추사와 복학파 자료들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소실을 면했습니다.

경향신문, 「유홍준의 안목」(11) 그는 공습 중인 도쿄로 향했다...추사의 '세한도'를 되찾으려

▲ 내가 사진 속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과천문화원 최중수 원장이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부탁하러 왔을 때 후지츠카 아키나오(사진 왼쪽)



소전 손재형이 <세한도>를 구하러 일본으로 찾아왔을 때 후지츠카 치카시(사진 오른쪽)



추사 인장과 사인

생각 더하기

▲ 추사의 서명과 도장

추사는 조선의 선비 가운데 호가 많기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호가 많으니 자연 글씨나 그림에 찍었던 도장도 많았겠죠? 도장 대신에 요즘은 무얼 하나요? 서명을 하죠? 예전엔 수결이라고 했어요. 추사의 도장과 서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 나만의 서명과 도장

나의 서명	이름 도장	나의 호를 새긴 도장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의 여성_1

13차시



나혜석



남녀평등을 외친 신여성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1910년 국권 피탈

1919년 3·1 운동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

1945년 8·15 해방

1894년

1910년

1919년

1932년

1945년

1896년 출생

1913년 일본 동경사립 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1927년 최초의 부부동반 유럽 여행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 「정원」 특선

1948년 사망



세계에는 어떤 일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17년 러시아혁명

1929년 대공황 발생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생각 열기

나혜석 거리는 왜 생겼을까?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을 기리기 위해, 수원시에서 팔달구 인계동의 효원공원부터 서쪽 600미터로 이어지는 거리를 '나혜석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나혜석 거리의 중심에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는 동상은 경기도 수원이 문화 도시임을 보여주는 듯하죠? 나혜석 동상의 맞은편에는 '잠들지 않는 길'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 도전해 온 그녀의 일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원 화성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분수대와 나혜석 거리에 대한 안내석이 있습니다. 안내석에는 한글과 영어, 일어로 나혜석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을 새겨놓았답니다. 이곳에 가면 효원 공원부터 이어지는 길에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음식 상점들이 줄지어 서있고, 길 곳곳에서 문화 퍼포먼스를 하는 거리의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혜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녀는 여성으로는 한국 최초로 미술 개인전을 연 개화기의 예술가였답니다. 이렇게 그녀는 많은 미술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작품도 남겼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고생을 하기도 하였죠. 정말 많은 활동을 한 여성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나혜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1 나혜석 생가터.



나혜석은 1896년 4월 18일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 29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¹ 아버지 나기정과 어머니 최시의 사이에서 5남매 중 넷째, 딸로는 둘째로 출생하였지요. 당시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분이어서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았죠. 그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혜석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답니다.

나혜석은 큰집의 사촌오빠인 나중석이 세운 수원 삼일여학교에 입학합니다. 졸업할 때에는 제1회 졸업생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나이가 14세였다고 하네요. 졸업 후 같은 해 9월 서울의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 동생과 함께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3년 후인 1913년 3월 28일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는 제3회,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는 제1회로 졸업을 합니다. 당시 졸업생은 나혜석과 동생 나지석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명이었다고 해요. 나혜석은 3학년 때 반장이었으며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는데, 당시 매일신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모양이네요.²

이후 나혜석은 1913년 4월 15일 일본 도쿄 혼고 기쿠사카초本郷 菊坂町에 있는 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화 보통과 1학년에 입학합니다. 평소 그림을 좋아했던 나혜석은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이 유학³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림공부를 하기 위해 도쿄로 가게 됩니다. 이후 시집을 가라는 아버지의 강요로 일시 귀국하여 교사로 일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1918년 3월 여자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귀국합니다. 당시에는 생소한 서양화를 공부한 그녀는 신여성으로서, 여성 화가로서 큰 꿈을 가지고 귀국했을 거라 생각해요.



2 매일신보 기사 1913년 4월 1일.

3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유학생 하란사, 그녀는 1900년까지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그해 3월 일본 동경의 경응의숙(게이오 대학)에서 1년간 유학한 뒤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 후 1906년 오하오주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문학사를 취득하였다.

나혜석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1919년 1월 21일에서 2월 7일, 《매일신보》에 「선달대목」이라는 주제로 4회, 「초하룻날」이라는 주제로 5회 등 모두 9점의 만평을 연재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선달 가사 노동을 주제로 하여 만평 형식의 그림과 짧은 글을 첨부한,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작품을 내놓기도 하였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4컷 만화 그리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만화 같지만, 당시대의 사회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먼저 1921년에 유화 개인전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하여 당시 여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는 최초였으니 당연하겠죠? 이어서 1922년 조선미술대전이 창설되자마자 많은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그녀가 출품하여 수상한 작품 목록입니다.

- 제1회(1922년) 「봄」 입선, 「농가」 입선
- 제2회(1923년) 「봉황산」 입선, 「봉황성의 남문」 4등 입상
- 제3회(1924년) 「가을의 정원」 4등 입상, 「초하의 오전」 입선
- 제4회(1925년) 「낭랑묘」 3등 입상
- 제5회(1926년) 「중국촌(지나정)」 입선, 「천후궁」 특선
- 제6회(1927년) 「봄의 오후」 무감사입선
- 제9회(1930년) 「아이들」 입선, 「화가촌」 입선
- 제10회(1931년) 「정원」 특선, 제12회 일본제전 입선, 「작약」 입선, 「나부」 입선
- 제11회(1932년) 「소년」 무감사입선, 「창가에서」 무감사입선, 「금강산 만상정」 무감사 입선

우와~ 엄청나죠? 남들은 한 편 입선하기도 어려운 일을 여러 해를 거쳐 많은 작품을 수상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중에 특선을 한 두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_1926년 특선작, 「천후궁」, 오른쪽_1931년 특선작, 「정원」.

하하, 선생님은 그림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대단한 작품이라니 여러분은 눈여겨 봐주세요.

한편 1927년 6월 19일 만주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던 남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배려로 나혜석은 남편 김우영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가기 힘든 유럽 여행을 약 90년 전에 떠나다니 참 부럽네요. 나혜석은 당시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8월부터 로저 비시에르가 지도하는 아카데미 랑송에 8개월간 다니면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술 유학을 간 셈이지요. 이후 그녀의 작품에는 유럽에서 공부한 것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본 신기한 풍경들이 녹아들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이야기들

독립운동에 나서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다

4 당시 나혜석이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일본에서 함께 활동한 김마리아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황애시덕, 김하르논, 박인덕, 손정순, 안병숙, 안숙자, 신준려, 박승일, 안병수 등 모두 11명이었다.

친구들은 3·1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1919년 3월 1일 일제를 깜짝 놀라게 한 만세운동은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제의 탄압에 대해 저항했던 운동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운동은 그동안 사회생활은 남자들만 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도 이 대열에 직접 참여하여 만세운동을 벌였지요. 그래요, 유관순 열사를 기억한다구요? 잘 아는군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나혜석은 어땠을까요? 나혜석도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얼마 후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여기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참여했겠죠? 그래서 당시 신교육을 실시했던 이화학당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성들도 참여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에 다수의 여성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중 안타깝게도 모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혜석도 여기⁴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5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옥경부⁵ 폭탄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

얼마 전 극장가에 개봉 21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2016. 9. 27 기준}한 영화가 있었지요? 네. 그래요 바로 '밀정'⁶이죠.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활동을 소재로 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영화는 작가가 상상으로 만든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는 사실, 몰랐죠?

'황옥경부 폭탄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의열단원들이 경기도 경찰부 소속의 조선인 경부 황옥과 손잡고 국내로 폭탄을 들여오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의열단은 상해의 비밀폭탄 제조공장에서 다량의 폭탄을 만들어 1923년 5월 중순 전국적인 의거를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3월 12일 황옥, 김시현, 김재진, 권동산 등은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서울로 왔고, 나머지 폭탄과 권총은 다른 데 보관하였는데, 김재진의 밀고로 그만 관련자 전원이 체포되고 만 사건입니다.

'황옥경부 폭탄사건'은 바로 그 1923년의 의열단 사건을 뜻합니다. 의열단은 3·1운동 이후 생겼는데, 보다 강력한 항일 투쟁을 위한 단체로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무장투쟁을 표방하며 1919년 11월 10일 만주 길림 지역에서 조직되었고, 후에는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하였고, 조선 내부의 서울, 대구 등지에서도 무력항일투쟁을 벌인 단체입니다.

평소 나혜석이 매우 존경하고 따랐던 오빠 나경석, 일본 유학을 안내해주기도 한 그는 만주에서 초기 독립운동을 했었고, 조선공산당의 전신인 한인사회당의 설립에 관여하였기에 나혜석은 이러한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혜석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구요? 1923년 의열단 사건의 당사자로 체포되어 실형을 산 전 광복회장 유석현의 회고를 비롯하여 당대의 유명한 아나키스트 이론가 유자명의 수기에는 나혜석이 자신의 외교관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중 중국 만주 지역에서 특히 의열단의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나혜석은 남편 몰래 독립운동가들의 권총을 집에 보관하였다가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일제의 감시가 철저했던 그 시대에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녀는 태연히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훗날 '황옥경부 폭탄사건'과 관련하여 나혜석과 김

5 경부는 일제 강점기 경찰 직책이다. 지금으로 보면 공무원 5급에 수준의 경정이나 경감에 해당한다.



6 영화 밀정 포스터.



황옥경부 폭탄 사건 재판 모습(앞줄 왼쪽이 황옥).

우영 부부는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1923년 3월 3일 중국 천진에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에게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령한 폭탄 36개와 권총 5정을 조선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하였습니다. 1923년 3월 22일, 새벽 열차로 폭탄과 권총, 전단을 몰래 옮기기 위해 신의주에서 출발하는 경성행 기차를 탔으나, 의열단 요원 김재진의 밀고로 안타깝게도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황옥, 김시현 등 9명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남녀평등을 외치다

요즘 세상은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성이 느끼는 생각과 여성이 느끼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되기까지 아주 많은 세월동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기까지도 남녀 차별은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아직 남아 있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당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남녀 차별 의식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혜석도 마찬가지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1920~30년대를 살았던 신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결혼 전에는 남성의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워내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져서, 요즘처럼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신여성, 즉 일본에 유학한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을까요? 나혜석처럼 당시 일본에 유학한 여학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자계》라는 문학잡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

니다. 원래 《여자계》는 처음에 승의여학교 출신 여자 유학생들의 간단한 소식지 형태로 나왔다가 유학생뿐만 아니라 조선 본국의 여성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문학가인 전영택·이광수가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편집부장은 황애시덕(황애스더), 편집부원은 허영숙·나혜석 등이었습니다. 나혜석 또한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이러한 여성 평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여자계》의 발간은 무엇보다 여자유학생들이 여성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계》⁷는 한국 근대 여성들의 자발적 자의식의 성장 가능성에 바탕을 둔 최초의 여성잡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계》에 나혜석은 최초의 여성 작가의 소설인 단편 「경희」를 1918년 3월에 발표합니다. 소설 「경희」는 나혜석의 대표적인 소설인 동시에 한국 근대문학사 초창기에 여성의 결혼 권리, 즉 결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하여 최초로 문제제기한 의미있는 역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의 일부를 살펴볼까요?

경희도 사람이다. 그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 철원 김 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하여튼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쭉은 가죽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냐, 사람이다.

이 소설은 ‘경희’라는 신여성이 당시 사회의 오랜 나쁜 전통에 맞서서 강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남성중심사회의 남성뿐만 아니라 구여성들까지도 나쁜 전통 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신여성의 애환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혜석은 「경희」에서 말했던 ‘여자도 사람’이라는 생각은 16년 후, 남편 김우영과의 이혼 몇 년 후에 발표한 「이혼고백장 - 청구 씨에게」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녀는 김우영과의 결혼에서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그 잘못됨을 드러냈습니다.



⁷ 《여자계(女子界)》는 1917년 12월 22일자로 창간된 재일(在日)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의 기관지 성격으로, 연4회 발행을 계획했으나 1920년 6월 통권 5호로 중단되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찾아보기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나혜석 인터뷰하기

나혜석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세 시기를 각각 인터뷰한다. 각 시기별로 내가 나혜석이 되어 당시의 심경을 말한다.

▲ 인터뷰 1 : 동경 유학 시절

질문 : 왜 일본까지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나요?

▲ 인터뷰 2 :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질문 :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그림 공부를 하였나요?

▲ 인터뷰 3 : 남편 김우영과 이혼한 후

질문 : 이혼 후에 발표한 「이혼고백장 - 청구 씨에게」 글을 쓸 때 심정은 어떠했나요?

남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보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 직장, 봉사활동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에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주위에서 들은 말 중에 “그건 남자가 하는 일이지.”, 또는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럼 그 말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활동해볼까요? 먼저 다음 내용에 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함께 하는 일
----------	----------	---------

그렇다면 여러분이 적은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볼까요?

★ 남자가 하는 일로 생각한 이유 말하기

★ 여자가 하는 일로 생각한 이유 말하기

★ 함께 하는 일로 생각한 이유 말하기

토론 :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각각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다 주장하는 근거는?	아니다 주장하는 근거는?
------------------	------------------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의 여성 2

14차시



명성황후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 여성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고종 즉위

강화도조약 체결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대한제국 선포

1863년

1876년

1884년

1894년

1897년

1866년 왕비가 됨



1873년 고종과 함께 친정을 함



1882년 임오군란 발생



1895년 사망

세계에는 어떤 일이?

1861년

미국, 남북전쟁

1871년

독일 통일

1882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 동맹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1896년

제1회 올림픽 대회 개최

생각 열기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한 우리나라 근대 건축물



사바틴은 1890년부터 1904년까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일했던 러시아 출신의 건축 기사입니다. 그는 덕수궁의 정관현과 중명전, 러시아공사관 등 개항기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 된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대한제국의 황실과 가까이 지내면서 고종황제를 보호하는 시위대의 부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895년 경복궁 건청궁에서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직접 목격하였고, 일제의 잔혹한 범죄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뜻을 펼친 명성황후에 대해서 공부해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꿈 많은 소녀에서 만백성의 어머니, 조선의 국모가 되다



1 생가 사진

2 소학은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수신서(修身書)로 일상생활의 예의 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3 효경은 유교 윤리의 핵심인 효의 원칙과 규범을 수록한 책.

4 여훈은 집안의 부녀자들에게 하는 훈시나 교훈.



명성황후의 본명은 민자영입니다. 그는 1851년철종 2년 9월 25일 경기도 여주군 근동면 섬락리에서 태어났습니다.¹ 그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6살에 왕비가 될 때까지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를 아버지도 없이 힘들게 살았던 셈이지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는데, 소학², 효경³, 여훈⁴ 등을 공부하

였고, 특히 역사를 좋아하여 역사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간접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는 훗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헤쳐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그가 왕비로 책봉된 것은 1866년고종 3년입니다. 당시 나이는 16세였고, 남편이 되는 고종은 15세였습니다. 고종의 어머니인 민씨는 그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 남편인 흥선대원군에게 적극 추천했습니다. 당시 고종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안정을 위해 왕비 간택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신하들도 속히 왕비를 맞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왕비 선택에 앞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외척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조 사망 이후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왕실의 외척들이 세도정치를 펼쳤고 이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고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등 백성들이 고통에 빠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비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인이 추천한 민자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민자영의 집안이 큰 권세를 갖지 않은 점과 친척이 많지 않은 단출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왕비 간택에서 민자영이 최종 선발된 것은 흥선대원군이 미리 점찍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덕궁에서 왕비로 간택된 그는 흥선대원군의 집인 운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비 수업을 흥선대원군이 살던 집에서 받았을까요? 걸음걸이부터 궁궐의 용어와 법도 등 왕비로서 지켜야 할 궁궐 예법을 자신의 집에서 받게 함으로써 시아버지인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고 왕비 집안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이후 민자영은 그를 데리러 운현궁으로 온 고종과 함께 창덕궁으로 들어갑니다. 창덕궁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궁궐의 어른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드린 후 비로소 그는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의 중전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흥선대원군과 세상을 다르게 본 명성황후

왕비가 된 민자영의 궁궐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낳은 아들이 태어난 지 4일 만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아이에게 보내준 보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흥선대원군이 보낸 약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오해를 한 것이지요. 원래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살아날 확률은 매우 적었지만, 그 보약을 먹고 죽었으니 명성황후 입장에

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궁궐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명령에 따르는 조용한 왕비로 사는 것에 대해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길러 왕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흘러 고종이 왕이 된 지 10년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주도하였지만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고종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총명한 왕비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흥선대원군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온통 흥선대원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쳤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흥선대원군에 대한 지지가 차갑게 식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리한 경복궁 중건 사업⁶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져 있었고, 서원 철폐⁷로 전국의 유생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개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판도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1873년 흥선대원군의 잘못과 정책을 비판하는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6 경복궁 중건은 1865(고종 2년)~1872년(고종 9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주도하여 시행한 일로 당시에 왕족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원망이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흥선대원군이 몰락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7 서원 철폐는 1864년(고종 1년)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민폐를 줄이며 궁핍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로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로 전국 650개 서원 중 소수서원·도산서원·도동서원 등 사표가 될 만한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되었다.



고종은 본격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것을 밝히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궁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흥선대원군의 10년 권력은 막을 내렸고,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가 전면에 나서게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직접 정치를 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외국과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개방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1876년 일본과 최초로 통상수호조약 강화도조약⁸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서양 여러 나라들과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881년 일본에 조사시찰단⁹을 보내고, 청나라에 영선사¹⁰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일제에 의해 스거진 국모

여러분은 명성황후의 외모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때에는 사진이 도입되어 흥선대원군과 고종, 순종 등 당시 왕족의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의 사진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황후의 모습이라고 주장한 사진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정확히 명성황후의 모습이라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추측해볼 뿐입니다.

명성황후를 직접 만난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의 증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19세기 말 한국을 다녀간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¹¹는 명성황후를 만난 후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후는 가냘프고 미인이었다……눈은 차고 날카로워서 훌륭한 지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석하고 야심적이며 책략에도 능할 뿐 아니라 매우 매혹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온 미국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은 명성황후에 대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8 강화도 조약 : 1876년(고종 13년)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9 조사시찰단은 1881년(고종 18년) 4월 10일부터 윤7월 2일까지 김홍집 등 약 4개월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었던 문물시찰단이다.

10 영선사 : 1881년 김윤식을 포함하여 청나라에 파견된 최초의 유학생이다.

11 이사벨라 버드 비숍여사 : 영국의 여행가이며, 작가, 지리학자로 서 세계 각지를 여행하였다.



그녀의 지식은 주로 중국에서 얻은 것이었지만 세계 강대국과 그 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자기가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섬세한 감각을 가진 유능한 외교관이었고 반대 세력의 허를 찌르는 데 능했다……그녀는 일본을 반대했고 애국적이었으며 조선의 이익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었다……그녀는 아시아의 그 어떤 왕후보다도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여인이었다.

외국인이 본 명성황후는 매우 총명하고 지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총명한 명성황후를 일본의 침략자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명성황후가 일본의 개입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1894년 국내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바깥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자 명성황후는 이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국간섭을 주도하여 일본의 대륙 침략을 견제할 러시아와 접촉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본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일본인들은 ‘여우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여우’라고 빗대는 일본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침략성과 야만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경, 경복궁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 일본 우익들¹²과 군인들은 곧바로 명성황후가 있는 건천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찾기 시작하면서 많은 궁녀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마침내 옥호루에서 명성황후를 찾아내어 처참하게 시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마저 향원정의 녹원에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을 지휘한 사람이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라는 것이 드러나, 일본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의 국모로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국권을 지키고자 노력한 명성황후가 시해된 당시 나이는 45세였습니다.



¹²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우익들 모습. _위키백과



생각 나누기

특종을 잡아간, 명성황후 시해사건!

▲ 다음 신문 기사를 참고해서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역사 신문을 만들어봅시다.

차이나 메일이 한국의 왕비와 13명의 시녀가 암살된 사건에 관한 상세한 소식을 전해왔다. 약 200명의 군인들이 왕비가 사는 궁전의 입구를 난입했으며 일본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과 궁궐 수비대 장교를 죽인 암살자들은 반역자들이며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뉴질랜드 신문 《더 프레스》

역사신문

1895년 10월 8일

▲ 조건

- 1)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 내용을 작성합니다.
- 2)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찾아 함께 작성합니다.
- 3) 당시 해외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찾아 이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내가 만약 명성황후라면

생각 더하기

▲ 1894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들의 항쟁은 점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한 정부군이 농민군에게 패배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명성황후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근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농민들은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일어난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농민들이 개혁을 펼칠 수 있도록 농민자치기구를 인정해 주자.

청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겠다.

지금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주는 양반들도 왕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농민들은 더 큰 요구를 하게 될 때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나의 의견은?

내 주장의 근거는?

내 친구 ()의 의견은?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의 여성_ 3

15차시



최용신



잠자는 조선을 깨운 상록수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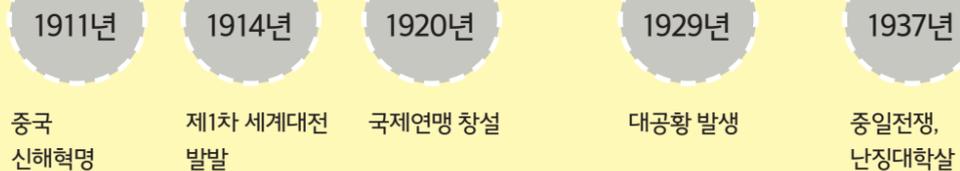
국권 피탈 3·1 운동 청산리 대첩 광주학생 항일운동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



1928년 루씨여자고등 보통학교 수석 졸업
 1931년 경기도 안산에 오다
 1933년 샘골 강습소 완공
 1934년 일본 고베여자 신학교 유학
 1935년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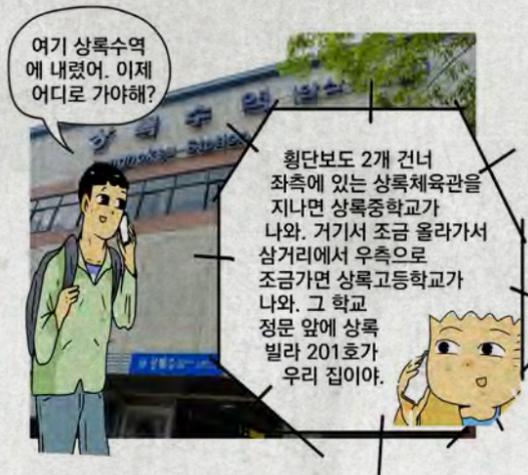


세계에는 어떤 일이?



생각 열기

여기는 왜 모두 상록이지?



경기도 안산시의 동쪽은 상록구, 서쪽은 단원구입니다. 단원구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 천재 화가인 단원 김홍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라는 명칭은 어떤 유래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심훈 선생님이 지은 소설의 제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설 상록수는 안산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펼친 최용신의 짧은 생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상록구에는 온통 상록이 붙은 이름이 많습니다. 상록구청, 상록보건소, 상록경찰서, 상록수역, 상록초등학교, 상록중학교, 상록고등학교, 상록체육관 등.....

오늘은 늘푸른 나무였던 '상록수' 최용신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농촌계몽운동에 헌신을 다짐한 최용신



1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

최용신은 1909년 8월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아버지 최창희의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덕원에 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는 10살이 되던 1918년 마을에 있는 두남학교에 입학해 2년간 다니다가 원산의 루씨여자보통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 같은 학교 계

열인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¹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 시절에 발표한 글을 보면 그가 농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내가 절실히 느끼는 바는 농촌의 발전도 마지막은 여성의 분투에 있다는 점이다. 오늘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농촌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이가 드문 것은 사실인 동시에 크게 유감된 바이다.

……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손을 서로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학교의 전희균 목사로부터 공부를 더 해보라는 말을 듣고 1929년 서울에 있는 협성신학교²현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준 황애덕² 교수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황애덕 교수는 일본 유학 당시 1919년 2·8독립선언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독립운

² 일명 애덕(愛德)-애시덕. 13세 때 평양정진여자학교 3학년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곧 이화학당(梨花學堂)에 입학해 191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곧장 평양의 송의여자학교 교사로 부임해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동을 하시면서 농촌계몽운동을 활발하게 펼치신 분입니다. 황애덕 교수는 최용신에게 인생의 목표를 제시한 분이자, 그 목표를 향해 실천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애덕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최용신은 학문 연구와 함께 그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 농촌계몽운동 실습을 하였습니다. 최용신은 첫째에는 황해도 수안군 용현리로, 이듬해에는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으로 농촌계몽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둘

마을에 학교를 세우다

최용신은 협성신학교 졸업 1년 전 학업을 포기하고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1931년 10월, 23세의 나이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샘골(현 안산시 본오동)로 내려왔습니다. 여자 기독교 청년회, 곧 YWCA³ 농촌 사업부에서 이곳을 둘러보고 나서 그를 교사로 임명하여 이곳에 파견한 것입니다.

³ YWCA : 기독교 여자청년회의 약칭으로 세계적인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이다.

그가 처음 왔을 때의 샘골은 주민이 총 20여 가구밖에 안 되는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물론 부녀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초보적인 한글·산수를 비롯해 재봉·수예·가사·노래·성경 등을 오전반·오후반·야간반으로 나누어 밤늦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꾸준히 늘어나 3개월이 지난 뒤에는 학생들을 예배당에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학원 인가를 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와 마을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932년 5월 중순경 어렵게 ‘샘골학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학원 인가를 받아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나 6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월면 둔대교회 설립자인 박용덕이라는 분이 1,052평의 땅을 기증해 학교를 새로 지을 터가 마련되었고, 건물을 세울 돈이 어느 정도 마련되자 학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를 한 지 2개월여 만인 1933년 1월 15일 최용신과 마을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샘골학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샘골학원의 완공으로 110여 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자 일제는 샘골학원에 대한 탄압을 하였습니다. 학원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최용신은 눈물을 머금고 50명의 학생들을 되돌려보낼 수밖에

샘골강습소 낙성식(1933년)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일제의 감시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힘에 겨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회 사업가가 되기 위한 부족한 공부를 위해 그는 1934년 3월 일본 고베 여자신학교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 유학 중 각기병에 걸려 6개월 만인 1934년 9월 귀국하여 샘골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샘골학원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지만, 그 즈음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YWCA가 재정난을 이유로 더 이상 샘골학원을 돕지 못하게 되었기에 1934년 10월부터 보조금을 완전히 끊는다는 소식을 보낸 것입니다.

이 소식에 실망을 한 것이 약해진 그의 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급히 수원도립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명은 ‘장중첩증’이었습니다. 이미 병세가 많이 진행되어 늦게나마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차 수술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서둘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결국 그는 학생들을 걱정하는 유언을 남기고 1935년 1월 23일 0시 20분, 25년 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⁴ 고베여자신학교



역사 속으로
이야기 셋

상록수 최용신을 기념하다

최용신은 비록 사망하였지만 그를 기리고 그의 뜻을 잇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용신의 뜻을 이어받은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장으로 치러진 그의 장례식

최용신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에는 뜻을 이루지 못한 그의 안타까움과 샘골학원과 학생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샘골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주십시오.

.....

샘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전로를 어찌하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전로를 어찌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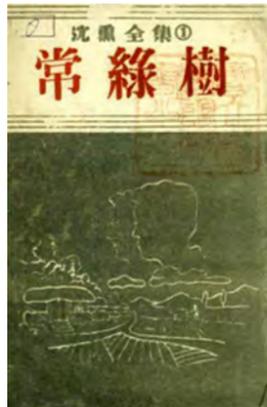
.....

유골을 샘골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안산 사람들은 샘골교회와 샘골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때 샘골 학생 120여 명을 포함하여 그의 운구를 따르는 안산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아직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의 공로를 인정하여 한 여성의 죽음을 지역 사회가 함께 슬퍼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최용신에 대한 안산 사람들의 슬픔과 그를 기리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소설과 영화 「상록수」로 다시 태어난 최용신

심훈은 동아일보에 실린 최용신의 사망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아 최용신을 모델로 한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설이 『상록수』⁷⁾입니다. 『상록수』는 1935년 동아일보사의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당선되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습니다.



소설 상록수



7 영화 상록수

소설 「상록수」는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배경으로 두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61년 신상옥이 감독하고, 최은희·신영균·허장강·도금봉·신성일이 출연하였습니다. 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는 당대 최고의 감독과 배우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1978년 임권택이 감독하고 한혜숙·김희라·이일웅·김형자가 출연하였습니다. 임권택 감독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입니다. 이렇게 두 편 모두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이 제작을 맡아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용신은 비록 사망하였지만 그를 기리고 그의 뜻을 잇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샘골학원 자리에 세운 최용신기념관

2007년 10월에 개관한 최용신기념관은 선생님의 열과 정신이 담긴 샘골학원이 있던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64 상록수공원 내에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교육실과 사무실, 지상 2층에는 전시실과 영상실이 마련되어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념관 옆에는 그의 유언대로 최용신의 묘가 있습니다.



최용신 기념관



생각 나누기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되어 보기



▲ 내가 최용신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봅시다. 최용신의 삶을 세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자신의 활동을 적어봅시다.

가) 출생에서 고등보통학교 시절

나) 협성 신학교 시절

다) 샘골 학원 시절

우경시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보기

생각 더하기

▲ 최용신이 살았던 1930년대에는 어려운 농촌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1.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자 생각을 적어봅시다.

2. 위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순위	내용
1	
2	
3	
4	
5	

3. 위의 문제 중 1, 2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만 적어볼까요?

1위 문제 해결 노력

2위 문제 해결 노력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의 여성_4

16차시



김향화



3·1운동에 참가한 기생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대한제국
수립

을사늑약

국권피탈

3·1운동

해방

1897년

1905년

1910년

1919년

1945년



1912~1913년 경
나이 많은
남편과 결혼

1914년
남편과 이혼



1919년
자혜의원 앞에서
만세시위



사망 시기
모름

세계에는 어떤 일이?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29년

대공황발생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생각
열기

아이돌 그룹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 우리가 선망하는 연예인들은 조선시대에는 광대라 불리며 천대를 받았습니다. 기생 역시 노래와 춤에 종사했지만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차별 의식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김향화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3.1 운동 당시 다른 기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독립운동가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회 지도자들로 대부분 남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사람들도 민족을 걱정하고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통치에 반발하여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미천한 신분의 여성이라는 차별을 뛰어넘고 용기 있게 만세를 부른 김향화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역사 속으로
: 이야기 하나

조선시대의 종합예술인, 기생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술 자리에서 웃음을 파는 여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기생은 춤과 노래는 물론 악기 연주와 시까지 창작하는 종합 예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으로는 공노비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강제로 불러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경기도 개성 출신

의 유명한 기생인 황진이와 제주도의 김만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는 조선 전기 중종 대에 살았던 개성 출신의 기생입니다. 그는 미모가 출중하며, 총명함과 예술적 재능을 갖추었기에 많은 이야기가 그가 지은 시조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시조 한 편을 보겠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쉬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할제 쉬어감이 어떠하리.

이 시는 학식과 권세를 겸비한 왕족인 벽계수에게 쓴 시입니다. 벽계수가 황진이를 기생이라고 무시하자 이 시를 지어 벽계수의 고고한 척하는 모습을 비꼬아 표현한 것입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고 푸른 물벽계수와 하늘에 뜬 밝은 달명월은 각각 인물 벽계수와 황진이를 뜻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절묘하게 연결시켜 자신의 심

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시를 많이 지었기에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로 존경받던 서경덕과 개성의 유명한 정치인 박연폭포와 더불어 개성에서 가장 뛰어난 3가지를 의미하는 ‘송도 3절’이라 불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생은 조선 후기 정조 대에 제주도에 살았던 김만덕입니다. 10여 세에 부모를 잃고 어느 기생의 수양 딸로 들어간 그는 수양 어머니를 따라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물이 넘자 본인이 양인임을 호소해서 기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 숙박업과 유통업을 겸한 객주를 운영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1792-1795년 사이에 계속된 흉년으로 제주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전라도의 쌀을 샀습니다. 이 쌀을 굶주린 제주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이지요. 그의 선행은 서울까지 알려집니다. 정조 대의 유명한 재상인 채재공은 그의 선행을 기록한 ‘만덕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도 그를 불러 선행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남성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기생이 천대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식과 예술적 재능으로 뛰어난 예술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기꺼이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역사 속으로
: 이야기 들

독립운동에 앞장선 기생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생각하면 흔히들 청산리대첩의 김좌진, 흥변도 장군이 나 의거활동을 전개한 윤봉길, 안중근 의사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생을 비롯한 여성들도 누구 못지않은 열렬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때입니다. 3월 19일 한금화를 비롯한 경상남도 진주의 기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진주 남강의 축석루를 향하여 가면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시위를 막으려고 일본 경찰이 진주 기생 6명을 붙잡아 갔는데, 한금화는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명주 천에 “기쁘다, 삼천리 강산에 다시 무궁화가 피누나.”라는 가사를 혈서로 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19년 3월 25일자 《매일신보》에도 실렸습니다. ‘기생이 앞서서 형세



자못 불온'이라는 제목 아래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구일은 진주 기생의 한 떼가 구한국 국기를 휘두르고 이에 참가한 노소여자가 많이 뒤를 따라 진행하였으나 주모자 여섯 명의 검속으로 해산되었는데, 지금 불온한 기세가 진주에 충만하여 각처에 모여 있다더라.

한편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17살 때 대구의 기생조합에 들어간 현계옥이라는 기생의 삶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풍류가무에 뛰어났고, 가곡, 승무, 가야금도 대단하였고, 한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춤과 가야금은 당대 최고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고향인 대구에 잠깐 들렀던 현정건¹이라는 남자를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현정건과 사랑에 빠진 현계옥은 그가 얼마

¹ 현정건(1887.6.29~1932.12.30)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후 중국 상해로 들어가 만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당시 만주에 있던 현정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현정건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현계옥은 의열단장인 김원봉²의 인정을 받아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의열단원이 됩니다.³ 그리고 김원봉으로부터 폭탄 제조법과 육혈포 쏘는 방법을 배워 의열단의 비밀활동을 담당하였다니 정말 대단하죠?



² 김원봉(1898~1958), 독립운동가. 의열단·조선의용대를 조직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광복군 부사령관으로 활동하였다.

³ 동아일보 기사 1925년 11월 6일.

역사 속으로
: 이야기 셋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기생, 김향화



김향화는 1897년 7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여동생과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는 경기도 수원에 살던 정도성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정도성은 그때 김향화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은 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이 많은 남자와 원하지 않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914년, 그의 나이 18살 되던 해에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생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919년 1월 27일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김향화는 기생 동기들 20여 명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는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원에서도 3월 16일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펼쳐집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 때 서울까지 올라갔던 김향화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김향화를 비롯한 수원기생 30여 명도 수원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3월 29일은 수원 기생들이 자혜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위생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김향화와 기생 일행은 자혜의원으로 가는 길에 의원 바로 앞에 있던 경찰서 앞에 이르러 대담하게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김향화 일행은 또다시 힘차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이를 지켜본 수원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합세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⁴

4 1920년 6월 20일 매일신보 기사.

독립유공자 표창장(2009년).



곧이어 이들은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 분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6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⁵

김향화는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가난한 집 딸이면서 천대받던 기생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당당하게 외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장과 훈장은 현재 수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5 김향화 출옥 기사 <매일신보> (1919년 11월 2일) 기사.

생각 나누기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는 기생



가) 황진이와 김만덕의 활동을 보고 이들이 오늘날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 적어봅시다.

	활동	우리나라에서 해당하는 직업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등의 시를 남김. 노래와 악기 연주에 뛰어남.	
김만덕	숙박업과 유통업을 크게 벌임. 장사 수완이 좋음.	

나) 김향화가 고종 황제의 장례식 때 서울까지 올라와 곡을 하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김향화와 그 일행이 재판관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재판관을 보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신분이란?

생각 더하기

▲ 신분, 신분제 사회 등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적어봅시다.

▲ 신분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쓰고 그 근거를 들어 봅시다. 정리가 끝나면 모둠원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나의 주장: 신분제 사회는 ()

그 근거는

▲ 현재 우리나라에도 신분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써봅시다.

나는 우리나라에 신분이 (있다고 없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

둘째,

참고 문헌

1차시

[도서]

한영우(1999).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이한우(1999). 『왜 조선은 정도전을 버렸는가』. 21세기북스.
조유식(2014). 『정도전을 위한 변명』. 휴머니스트.
조열태(2014). 『정도전과 조선건국사』. 이북이십사.
정도전(2013). 『삼봉집』.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정도전 : 네이버캐스트- 새 왕조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798

2차시

[도서]

KBS 역사저널(2016). 『역사저널 그날 7』. 민음사.
박시백(2015). 『조선왕조실록 16』. 휴머니스트.
백승호(2016). 『정조의 신하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이태호(2016). 『사람을 사랑한 시대의 예술, 조선 후기 조창화』. 마로니에북스.
장강(2015). 『왕의 책사들』. 글로북스.

[사이트]

체제공 : 네이버캐스트- 뛰어난 경륜으로 정조의 개혁을 보필한 재상,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7088

3차시

[도서]

김상홍(2009). 『다산학의 신조명』.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문원(1982). 『한국현대교육사상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무영(1989). 『다산의 실학적 교육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만길(1984).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신천식(1995). 『한국민족사』. 형설출판사.
조동걸 외(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박석무(2014).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4차시

[도서]

김상웅(2016). 『몽양 여운형 평전』. 채륜.
이기형(2004). 『여운형 평전』. 실천문학사.

전상봉(2009). 『몽양 여운형』. 산하.

[사이트]

여운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1208&cid=46626&categoryId=46626
몽양여운형기념관, http://www.mongyang.go.kr/page/museum3_con11.asp
사단법인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http://www.mongyang.org

5차시

[도서 및 논문]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박영규(2006). 『고려사 이야기』1. 주니어김영사.
박중기(2015).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안정애(2012).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한국사사전편찬회(1995). 『한국고중세사 사전』. 거란. 가람기획.
이수건(1976). 『고려시대(高麗時代) 토성연구(土姓研究) 상(上)』. 《아세아학보》, 12. 아세아학술연구회.
변태섭(1961). 『고려조(高麗朝)의 문반(文班)과 무반(武班)』 『사학연구』, 11. 한국사학회.
변태섭(1971).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황원구(1965) 『서희(徐熙)』 『인물한국사』 II. 박우사.
김상기(1959).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서희(徐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이트]

이천시 문화관광과, http://tour.icheon.go.kr/site/tou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신문기사]

연합뉴스, 『외교의 귀재』 서희선생 테마파크 이천시 개원』, 2016.06.16.

[이미지 출처]

‘만부교’, 경향신문, 『이기환 기자의 흔적의 역사, 태조 왕건이 낙타를 굶겨 죽인 이유』, 2015.06.2.
‘10세기 무렵 고려의 주변 국가’,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6차시

[도서 및 논문]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백사집(白沙集)』
김상기(2000). 『임진왜란기 권율의 이치대첩』. 『충남사학』, 12. 충남사학회.
이경석(1976). 『임진전란사』. 신현실사.
전국역사교사모임(2012).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전쟁기념관 편(1999).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이트]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http://people.aks.ac.kr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민족 전투, 행주산성 [幸州山城]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4785&cid=49345&categoryId=49345
네이버 캐스트, 권율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002&cid=59015&categoryId=59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이미지 출처]

‘이치전투 지도’,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권율장군 이치대첩비’,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동북아 역사넷 ‘10세기 무렵 고려의 주변 국가 지도’, http://contents.nahf.or.kr.
‘세마대’, 경기관광포털, https://ggtour.or.kr
‘행주산성’, https://www.youtube.com/watchv=HYoOXyJqGCM
‘행주대첩 그림’ 전쟁기념관.
‘행주산성 축제 포스터’, 경기관광포털, https://ggtour.or.kr
‘변이중 화차도’,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비격진천뢰’,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판옥산’, 각선도본, 나무위키, https://namu.wiki
‘천자총통’,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7차시

[도서 및 논문]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박민영(2009). 『한국독립운동의역사 10』. 한말 중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박석무(2008). 『의병장 최익현의 기개와 애국심 上』.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 39. 경향신문.
박석무(2008). 『의병장 최익현의 기개와 애국심 下』.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 39. 경향신문.
정교 저, 국사편찬위원회 역(1957). 『대한계년사』. 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10).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홍영기(2009).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1』,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근현대사사전』, 을사조약(乙巳條約) 편. 2005. 가람기획.

[사이트]

네이버 캐스트, 최익현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184&cid=59015&categoryId=59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여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yeouju.go.kr/culture/content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i815.or.kr

[이미지 출처]

‘무성서원 명륜당’, 독립기념관, www.i815.or.kr
‘아라비 파사 사진’, 위키백과, Ahmed_Orabi_1882.
‘양평의 의병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이토 히로부미 문서 사진’, 독립기념관, http://www.i815.or.kr

8차시

[도서 및 논문]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5. 국가보훈처
이장락(2007). 『민족대표 34인 석호필』. 바람출판사.
김승태-유진-이항 엮음(2012). 『강한 자에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이트]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harasarang/gonghun
네이버 캐스트, 스코필드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352&cid=59011&categoryId=590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경기관광포털, https://ggtour.or.kr/blog/2014/10/24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i815.or.kr
안성 3.1운동기념관, http://41.anseong.go.kr
화성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sview

[신문기사]

연합뉴스,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이 끔찍함을 알려야 한다』, 2015.02.26.
오마이뉴스, 『만세운동의 선구자, 탄은 이정근』, 2014.04.18.
문화일보, 『해외봉사상 수상한 의사 박관태』, 2016.11.24.

[이미지 출처]

‘탑골공원 팔각정’, 독립기념관, http://www.i815.or.kr
‘안성 3·1운동기념관 및 기념식’, 안성 3.1운동기념관, http://41.anseong.go.kr
‘이정근 노래비’, 오마이뉴스, 『만세운동의 선구자, 탄은 이정근』, 2014.04.18.
‘불타 버린 제암리 교회 사진’, 독립기념관, www.i815.or.kr
‘스코필드 박사 사진’, 국가보훈처.
‘제암리 기념관 공원 스코필드 동상’, 연합뉴스,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이 끔찍함을 알려야 한다.』, 2015.02.26.
‘발안만세시장’, 화성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sview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탑’, 제암리 3·1운동기념관

9차시

[도서]

국사편찬위원회(2003).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2001). 『2000-2001 연천군 전국구석기유적 전면시굴조사보고서』. 연천군.

[자료 및 홈페이지]

전곡선사박물관, http://jgpm.ggcf.kr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

[동영상]

문화유산채널. <한반도의 첫 사람, 첫발자국 1부 30만 년 전의 민능칼, 주먹도끼>, http://www.k-heritage.tv/brd/board/229/L/CATEGORY/2342/me nu/374?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2342&bbIdx=10617&brdType=R
문화유산채널. <세계를 발카 뒤집어 놓은 전곡리 주먹도끼-연천 전곡리 유적>, http://www.k-heritage.tv/brd/board/229/L/CATEGORY/2339/me nu/375?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2339&bbIdx=10595&brdType=R

10차시

[도서]

이응백 외(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경기도(2005).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2004). 『문화재대관(보물편·석조1, 개정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자료 및 홈페이지]

회암사지박물관, http://museum.yangju.go.kr
2002.01.30. 현대불교신문 『고승 다시보기』,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5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577

[동영상]

영상으로 보는 한국사, <8편 불교>, http://kids.cha.go.kr/kids/multiBbzView!view.action?id=53&no=53&curPage=1&strWhere=&strValue=&schWhere=&schDirect=&bbzId=kidshistory&sdate=&edate=&category=&mc=KD_02_07_03&bbzgubun=write

11차시

[도서]

원주용(2010). 『조선시대 한시읽기(상)』. 아담북스.
김경옥(2005). 『울국 이미』. ㈜한국헤밍웨이.
정춘수(2015). 『이황과 이이의 멋진 공부 대결』. ㈜위즈덤하우스.
피주문화원(2007). 『큰 스승 울국 이이의 삶과 사상』. 피주문화원.
한영우(2013). 『울국 이미 평전』. 민음사.
고운기 외(2006).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4(역사 정치)』. 휴머니스트.
강동호(2001).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이수광(2012). 『공부에 미친 16인의 조선 선비들』. 해냄출판사.
경기도교육청(2015).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초등학교용』. 경기도교육청.
인명사전편찬위원회(2002). 『인명사전』. 민중서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2006).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자료 및 홈페이지]

네이버캐스트, 울국 이미 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32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참고 문헌

울곡문화제, https://tour.paju.go.kr/tour/festival/festival02/festival02_4/festival02_4_01/festival02_4_01_01.jsp 경기관광포털, 자문서원, http://ggtour.or.kr/blog/tour_history/%EC%9E%90%EC%9A%B4%EC%84%9C%EC%9B%90/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3030&cid=47322&categoryId=4732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75263&cid=51890&categoryId=53713

[동영상]

문화유산채널, <오죽헌 1부-신사임당은 왜 친정에 살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eMIs00fMd9U 문화유산채널, <오죽헌 2- 시묘살이 3년 이이의 사모곡>, https://www.youtube.com/watch?v=EsEZ7Qjep0

12차시

[도시]

오주석(2009).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월간미술. 이상문(2012). 『진품평점 골동이야기』. 도서출판 선. 정혜린(2008).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문화사. 경기도교육청(2015).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초등학교용』. 추사박물관(2013). 『알기 쉬운 추사 해설집』. 추사박물관. 추사박물관(2013). 『추사박물관 도록』. 추사박물관. 과천문화원(2008). 『추사 자료의 귀향』. 과천문화원. 과천문화원, 후지쓰카 치카시(2009). 『추사 김정희 연구』. 과천문화원. 임석진 외 편저(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임종욱 편저(2010).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화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응백 외(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자료 및 홈페이지]

경향신문, 2016. 10. 10, 『유홍준의 안목』(11) 그는 공습 중인 도쿄로 향했다…추사의 '세한도'를 되찾으려 추사박물관, http://www.chusamuseum.go.kr/view/main/main.jsp 제주추사관, http://chusa.seogwipo.go.kr/index.php/contents/whois/story 네이버 캐스트 김정희 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4585

네이버 캐스트, 초의 선사 편. (이진수, 이진미(2008). 『찾잎 속의 차』. 이른아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8467&cid=42752&categoryId=42755

[동영상]

지식채널e, <문화유산시리즈 추사 김정희의 붓은사 판전>, https://www.youtube.com/watch?v=1wCXLg8Enp8 KTV, <김정희 세한도>, https://www.youtube.com/watch?v=8CoZdhGGmgU

13차시

[도시]

이상경(2009).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이영미(2014). 『못(毋)된 감상기 나혜석』. 페리터. 윤범모 외(2011).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허현 외(2015). 『경성 에리뜨의 만국 유람기』. 현실문화. 서정자(2013). 『나혜석 전집』. 나혜석기념사업회. 푸른사상. 오형엽(2011). 나혜석 단편집 『나혜석』. 지식올만드는지식. 윤석화(2015). <윤석화가 읽는 나혜석의 경희(오디오북)>. 나혜석.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정자(2016). 『나혜석 문학연구』. 푸른사상. 이구열(2011). 『나혜석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박정운(2016). 『나혜석 운명의 캉캉』. 푸른역사. 최동호 외(2015). 『나혜석, 한국 문화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정금희(2003).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카미유 끌로델』. 재원. 유진월(2003). 『불꽃의 여자 나혜석(유진원 희곡집1)』. 평민사. 정규웅(2015). 『붉은 꽃 나혜석(정규웅 장편소설)』. 책이있는마음. 송명희(2015).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해부하다』. 지식과 교양. 김진·이연택(2009). 『그땀 그 길이 왜 그리 졸랐ند고』. 해누리기획. 나혜석 지음, 『나혜석 작품집』. 지만지고전천출. 오형엽 옮김(2008). 수원박물관, 나혜석학회(2012). 『나혜석 연구의 쟁점과 과제』. 나혜석 학술대회. 신혜원(2015). 『한국 근현대 여성화가 연구 - 나혜석과 박래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김신애(2001). 『나혜석 연구』. 수원대학교.

이정민(2013). 『나혜석의 여성문제 인식과 교육관』. 중앙대학교. 나혜석(2011). 『나혜석 단편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이덕일(2003). 『여인열전-나혜석-전근대사회에 좌절된 최초의 근대여성』. 김영사. 나혜석기념사업회(2001).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권오숙 외(2011). 『그녀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했다』. : 불꽃처럼 살다간 12인의 여성작가들』. 한길사. 이구열(2011). 『나혜석』. 서해문집. 정규웅. 『나혜석 평전내 무덤에 꽃 한 송이 꽂아주오』. 랜덤하우스코리아. 서경석·우미영 엮음(2007). 『신여성, 길 위에 서다』. 도서출판 호미. 이덕일(2009). 『이덕일의 세상을 바꾼 여인들』. 옥당. 박환(2007).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 도서출판선인. 나혜석(2006). 『경희 외』. 범우. 함정임(2004). 『춘하추동』. 민음사. 나영균(2004).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유진월(2003). 『불꽃의 여자 나혜석 : 유진월 희곡집 1』. 평민사. 조용훈(2002). 『요절』. 효형출판. 염혜정(2002). 『여성의 삶과 미술』. 창해. 경기문화재단(2006). 『풍수』. 경기문화재단. 정금희(2003).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 : 시대를 앞서 예술적 영명과 만난 여인들』. 재원. 박용욱(2001). 『한국 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고미숙(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책세상. 최혜실(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조수비(1999). 『백년의 고독 1,2』. 도서출판 찬성. 한국여성개발원(1998).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하)』. 한국여성개발원. 문옥표 외(2004). 『신여성』. 청년사.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정영자(2002).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이상경(2000). 『나혜석 전집』. 태학사. 홍인숙(2007). 『누가 나의 슬픔을 놓아주랴』. 서해문집. 윤범모(2005). 『화가 나혜석』. 현암사. 나혜석(1999). 『이혼고백서』. 오상. 길박세상(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신지영(2008). 『꽃과 풍경』. 미술사랑. 한상남(2008). 『저것이 무엇인고』. 샘터사. 장성주(2008).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사회평론. 함정임(2004). 『나를 사로잡은 그녀, 그녀들』. 이마고. 홍인숙(2007). 『누가 나의 슬픔을 놓아주랴』. 서해문집. 김미현(2004). 『연애소설』. 도서출판 글빛. 이구열(1974). 『나혜석일대기 - 에미는 선각자(先覺者)였느니라』. 동화출판공사.

이명운(1955). 『흘러간 여인상 : 그들의 예술과 인생』. 인간사. 임종국 외(1966). 『흘러간 성좌』. 국제문화사. 서동수(2010). 『한국여성작가연구 : 나혜석』. 한국학술정보. 윤범모(2007). 『첫사랑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다 : 화가 나혜석의 고백』. 다할미디어. 이경성(1980). 『한국근대화』. 일지사. 테레사 현 지음, 김혜동 옮김(2004). 『번역과 창작 : 한국 근대 여성 작가들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자료 및 홈페이지]

네이버 캐스트, 나혜석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525&cid=59015&categoryId=59015 한겨레, 『나혜석은 어떻게 금기를 깬나』, 2008. 10. 10. 한국사전(제59회), 『나는 말한다 - 내게 금지된 것을 말한다』. 한겨레,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羅蕙錫)』, 2002. 11. 04. 연합뉴스, 『아들이 털어놓은 어머니 나혜석』, 2009. 03. 11. 한겨레21, 『말하는 여자의 천역』, 2001.05.03. 제356호. 네이트 한국학, 나혜석 편. 경향신문, 『길, 숲, 섬』. 시대에 맞선 신여성을 기념하며… 수원 나혜석거리』, 2009. 10. 16. 조선일보, 『다시 읽는 여인열전 남성중심 사회서 희생된 나혜석』, 2009. 09. 10. 한겨레, 『첫 여성화가 나혜석 탄생기념 심포지엄』, 2004. 04. 20. - 나혜석(1896-1946) 그림의 천재, 거울에 피어난 자유의 꽃 - 나혜석 : 2000년 2월의 문화인물 - 박노자(2005). 『현모양처론』과 그 반대자들 : 나혜석, 김일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자료집.

[기타]

중앙일보, 『모성애는 의무가 아니다』, 2011. 10. 13. 중앙일보, 『가지 않은 길』. 걸어온 여성들의 삶…서울여성사 전시회』, 2002. 01. 29. 중앙일보, 『그림·사진·글로 말하는 '나는 나혜석이다』, 2011. 12. 24. 조선일보, 『채널 CTN』. 신여성 나혜석 특집』, 2000. 02. 01. 중부일보, 『나혜석을 조선.수원 틀에 가두지 말고 세계로 알려나가야』, 2012. 03. 06. 여성동아, 『나혜석 둘째 아들 김진 전 서울대 교수가 띄우는 고백 : "시대 앞서간 어머니와 상처 속에 살다 간 아버지… 이제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2009. 05. 21. 한겨레, 『스캔들 걸어낸 나혜석의 참모습』, 2004. 01. 02. 한겨레, 『100년 전 '비운의 알파걸' 나혜석 아니?』,

2008. 03. 07. 문화일보, 『소외받은 근대여작가 3인 탐구』, 2000. 02. 09. 경향신문, 『시대에 맞선 신여성 나혜석… 불같은 예술혼에 반했어오』, 2009. 04. 02. 한겨레, 『주눅 든 식민지 남성 신여성에 눈 흘기다』, 2005. 12. 08. 경향신문, 『나혜석 전집』, 2011. 05. 30. 중앙일보, 『화성 행궁서 나혜석이 살아난다』, 2012. 06. 01. 중앙선데이, 『재일유학생과 '반역』. 일본사회주의자 손잡다』. 제266호. 문화일보, 『나혜석을 찾다가 나 자신을 알았다』, 2004. 12. 14. 조선일보, 『아들이 털어놓은 어머니 나혜석』, 2009. 03. 11. 조선일보, 『나혜석의 생각·몸·생활은 그대로 예술이었다』, 2009. 03. 14. 동아일보, 『페미니스트 웹진 '달나라달세포' 편집장 야옹이』, 2000. 05. 22. 문화일보, 『90년대 튀는 여성들 '참을 수 없는 가버움』, 1998. 04. 16. 동아일보, 『동아연출상』. 이젠 사람 냄새 나는 작품 해보고파』, 2001. 01. 30. 한겨레, 『처음'을 걸었던 나혜석의 길을 쫓아』, 2004. 12. 24. 문화일보, 여류화가 나혜석을 그린 풍경화 문화일보 2009. 03. 13. 월간중앙, 『김서령이 만난 명문가 사람들』. 영문학자 나영균-고모 나혜석의 추억… 그 쓸쓸한 DNA 스민 듯』, 2005. 12. 01. 동아일보, 『여성을 옹매는 끈을 내어 노라. 인형이 아니고자 슬퍼졌던 노라』- 나혜석 가상 인터뷰』, 2000. 05. 22. 조선일보, 『함정임 씨, 신작 소설 춘하추동 출간』, 2004. 12. 15. 한겨레, 『남자'답기를 거부하라』, 2006. 02. 07. 뉴스1, 『수원 단풍거리 10곳에 선정된 박지성도로』, 2014. 10. 29. (출처 : 수원 단풍거리 10곳에 선정된 박지성도로 [뉴스1] 입력 2013. 10. 29. 16:33) 경기관광포털, 나혜석 거리, https://ggtour.or.kr/blog/tour_shopping/%EB%82%98%ED%98%9C%EC%84%9D%EA%B1%B0%EB%A6%AC

14차시

[도시]

한영우(2006).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 효형출판. 이은유(2014).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자음과 모음.

15차시

[도시]

류달영(1999). 『최용신의 생애』. 성천문화재단. 홍석창(2010). 『최용신과 샘골마을 사람들』. 한국강리교사학회. 서병욱(2010). 『어리석은 선구자 최용신』. 안산시. 윤유석(2010). 『내 몸동이는 샘골과 조선을 위한 것이다』. 안산시. 김기명(2016). 『상록수 최용신 선생님의 발자취를 되밟으며』. 상록수문예원. 안산시(2009). 『최용신 기억속에서 아시아로 걸어 나오다』. 안산시.

[영화]

상록수(1961).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 상록수(1978). 임권택 감독. 한혜숙 주연.

[기타]

디지털안산문화대전, http://ansan.grandculture.net/?loc=ansan

16차시

[도시]

이동근(2014). 『역사는 살아있다』. 블루씨. 이동근(2016). 『신작로 근대를 품다』. 블루씨. 신현규(2010). 『기성, 조선을 사로잡다』. 어문학사. 이수광(2014). 『조선을 뒤쫓든 16인의 기생들』. 다산북스.

경기도 역사여행 [인물 편]

집필진

김봉수(남창초등학교 교사)
김진호(원곡고등학교 교사)
신대광(원일중학교 수석교사)
조성래(남창초등학교 교사)

감수 경기도역사교과연구회

그림 원유미

만화 이우영

편집·디자인 세상의 모든 아침

초판 1쇄 발행 2017년 7월

초판 5쇄 발행 2019년 8월

편찬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전화. 031-231-8577

ISBN 978-89-999-0086-0 13900(비매품)

이 책자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